

꿈을 잇는 다리, 희망을 여는 길

# 꿈사랑학교 소식

2025.02

[www.nanura.org](http://www.nanura.org)



꿈사랑학교

발행인 | 안병익 발행일 | 2025년 2월 편집인 | 이우빈, 박경진, 박다영, 오미주, 강효진

발행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로127(가음동) 별관 3층 꿈사랑학교

TEL 055.266.4416 | FAX 055.264.4416 | [www.nanura.org](http://www.nanura.org) | [hana3369@hanmail.net](mailto:hana3369@hanmail.net)



# 꿈사랑학교 입학부터 학교 복귀까지

실시간 화상강의



진로상담수업



명사특강



동아리활동



체험학습



수련회



학습간담회



문예창작대회



꿈사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꿈사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소속학교 복귀프로그램



병원 방문



치료비 및 장학지원



수료식



3 꿈사랑학교소개

4 새로운 우리들의 공간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센터' 개소

5 꿈사랑학교 교과 수업을 소개합니다. -꿈사랑학교 교육과정 소개

6 새로운 시작, 설레는 준비 -꿈사랑학교 교직원 연수

7 미리 보는 꿈사랑학교의 2024년 -교육과정설명회

8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교육 -소속학교 교사 연수

9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따숨봉사화와 함께하는 드신 편지

10 함께하는 즐거움 -2024학년도 꿈사랑학교 온라인 체험학습

14 재능을 찾아보는 시간 -동아리 활동

15 나를 찾아가는 시간 -진로 상담 수업

16 공감하며 말해요 자치적응활동

17 영어로 놀자! -영어 회화 멘토링

18 다시 만나 정말 반가워요! -2024학년도 꿈사랑학교 수련회

26 덩다더워 여름 방학 때 뭐하지? -온라인 여름 교실

27 너의 꿈을 그리렴 -진로·명사특강

30 우리가 성장해나가는 모습들 -학교생활기록부, 학업성취도평가

31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꿈사랑학교 운영위원회

32 제18회 꿈사랑학교 문예창작대회 결과

45 화면 밖에서 만나요 -병원 방문

50 2024학년도 꿈사랑학교 성과공유회에 초대합니다!

51 너의 빛나는 성장을 응원해 -2024학년도 온라인 수료식

54 우리들의 이야기

57 내 마음이 너에게 닿기를 -물링페이퍼

58 더 나은 환경을 위한 개선의 목소리 -연론 보도 소식

59 꿈사랑학교의 소통창구 -꿈사랑학교 SNS

60 후원 소식

62 (사)더불어하나회 4년 연속 스타공익법인 선정

63 후원자를 찾습니다 -후원 안내





# 꿈사랑학교 소개

꿈이 있는 곳  
희망이 영그는 곳  
사랑이 엮어지는 곳



꿈사랑학교  
홈페이지 바로가기



꿈사랑학교 소개  
동영상 바로가기

## 꿈사랑학교 설립일

2004. 4. 25.

(더불어하나회는 1990년 9월 12일부터 환아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학교 소개

꿈사랑학교는 특수교육법에 의거, 2006년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13개 시·도(경남,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제주) 지역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초·중·고 건강 장애 학생 및 장기결석생들에게 인터넷상 실시간 양방향 화상강의를 통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능력 향상과 화상 수업 지원을 통한 공식적 출석인정을 통해, 학습유예를 방지하고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건강장애학생들의 치료 후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 원적지별 현재 학생 현황

| 급별 | 원적지별 수강 학생 수(기준일: 2025.1.3.) |    |    |    |    |    |     |    |    |    |    |    |    |     |
|----|------------------------------|----|----|----|----|----|-----|----|----|----|----|----|----|-----|
|    | 경남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경북 | 전북 | 전남 | 제주 | 계   |
| 초  | 36                           | 7  | 14 | 3  | 2  | 15 | 106 | 2  | 6  | 8  | 25 | 12 | 4  | 240 |
| 중  | 32                           | 10 | 7  | 3  | 0  | 7  | 89  | 2  | 6  | 8  | 9  | 13 | 11 | 197 |
| 고  | 32                           | 6  | 7  | 4  | 7  | 7  | 81  | 2  | 8  | 7  | 14 | 10 | 9  | 194 |
| 계  | 100                          | 23 | 28 | 10 | 9  | 29 | 276 | 6  | 20 | 23 | 48 | 35 | 24 | 631 |

※ 전체 누적 이용 학생 수: 6,587명(2006년~현재까지)  
(현재 수강생: 631명, 학교복귀: 3,860명, 졸업: 1,324명, 사망: 742명)

## 질병별 현재 학생 현황(병명 기준)

| 병명별     | 원적지별 질환 분포 현황도(기준일: 2025.1.3.) |    |    |    |    |    |     |    |    |    |    |    |    |     |
|---------|--------------------------------|----|----|----|----|----|-----|----|----|----|----|----|----|-----|
|         | 경남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경북 | 전북 | 전남 | 제주 | 계   |
| 백혈병     | 28                             | 8  | 3  | 5  | 1  | 4  | 91  | 3  | 9  | 6  | 15 | 13 | 8  | 194 |
| 소아암     | 29                             | 6  | 9  | 2  | 5  | 11 | 90  | 1  | 6  | 5  | 12 | 10 | 5  | 191 |
| 재생불량성빈혈 | 2                              | 0  | 3  | 1  | 0  | 0  | 6   | 0  | 0  | 3  | 0  | 1  | 1  | 17  |
| 심장병     | 3                              | 0  | 0  | 0  | 0  | 0  | 4   | 0  | 1  | 2  | 2  | 0  | 1  | 13  |
| 신장병     | 1                              | 2  | 2  | 0  | 0  | 3  | 3   | 0  | 0  | 0  | 0  | 0  | 1  | 12  |
| 간장애     | 0                              | 0  | 1  | 0  | 0  | 0  | 3   | 0  | 0  | 0  | 0  | 1  | 0  | 5   |
| 근육병     | 2                              | 2  | 1  | 0  | 0  | 1  | 6   | 0  | 0  | 0  | 2  | 0  | 0  | 14  |
| 기타      | 29                             | 5  | 7  | 2  | 3  | 8  | 63  | 1  | 4  | 7  | 16 | 7  | 7  | 159 |
| 요보호학생   | 6                              | 0  | 2  | 0  | 0  | 2  | 10  | 1  | 0  | 0  | 1  | 3  | 1  | 26  |
| 계       | 100                            | 23 | 28 | 10 | 9  | 29 | 276 | 6  | 20 | 23 | 48 | 35 | 24 | 631 |

※ 기타질환: 뇌병변, 간질, 소아당뇨, 루푸스, 류마티스관절염, 모야모야병, 주기성 구토증, 크론병, 베체트병 등을 포함한 희귀 난치성 질환을 의미함.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센터' 개소

## 새로운 우리들의 공간



건강장애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센터>가 서울에 새롭게 문을 엽니다.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센터>는 교사와 학생 또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간의 만남이 가능한 공간으로, 소통의 공간이자 소중한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오프라인 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의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 건강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세미나, 토론회, 전문가모임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센터>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지지하는 소중한 후원과 관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 꿈사랑학교 교과 수업을 소개합니다!

## ○ 꿈사랑학교 교과과정

꿈사랑학교에서는 통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교과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3학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6학년에 도덕 과목이 개설되었으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는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건강장애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중학교 1~2학년에도 도덕 과목이 개설되며, 초등학교 3~6학년에 체육 과목이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 ○ 수업 장면



## 새로운 시작, 설레는 준비



학생 여러분들이 새학기가 다가오면 교과서와 학용품을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학기를 맞이하듯이 선생님들도 새학기가 찾아오면 준비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한 해 동안 즐거운 수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



**일자** 2024년 3월 4일  
**장소** 꿈사랑학교  
**참석자** 꿈사랑학교 교장선생님 이하교직원  
**연수 내용** 2023학년도 교육 활동을 돌아보며  
 2024학년도 꿈사랑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새학기 교육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



**일자** 2024년 4월 19일  
**장소** 꿈사랑학교  
**참석자** 꿈사랑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  
**연수 내용** 하계수련회 관련 응급조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일자** 2024년 9월 6일  
**장소** 꿈사랑학교  
**참석자** 꿈사랑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  
**연수 내용** 꿈사랑학교 명예교사 강원식 시인님의  
 표현법 강의



**일자** 2024년 11월 1일  
**장소** 꿈사랑학교  
**참석자** 꿈사랑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  
**연수 내용** 다양한 교수법 소개 및 활용 방법 논의





# 미리 보는 꿈사랑학교

꿈사랑학교에서는 매년 초에 한 해 동안 진행되는 교육과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님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교육과정을 알아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니 참여하면 좋겠죠?^^

|                                                                                                                                                              |                                         |
|--------------------------------------------------------------------------------------------------------------------------------------------------------------|-----------------------------------------|
| <b>교육과정</b><br>초등학교는 1월 1주목 4일, 중·고등학교는 1월 2주목 4일<br>꿈사랑학교 수업을 참여할 때 필수로 보아야 할 필수<br>강령을 반드시 1월 12일까지 홈페이지에 등록<br>(매월 1주목 12일 홈페이지에 등록 시 1주목 12일 수업에 참여 가능)  | <b>진로탐색</b><br>진로탐색<br>진로탐색<br>진로탐색     |
| <b>2024년 수업일정</b><br>1학기 제1차 수업<br>~ 4월 27일(목), 5월 11일(목)<br>2학기 제1차 수업<br>~ 1차: 9월 21일(목), 9월 28일(목)<br>~ 2차: 10월 19일(목), 10월 26일(목)<br>오전/오후 선택 가능, 2시간 진행 | <b>현장 방문</b><br>현장 방문<br>현장 방문<br>현장 방문 |

|                                                  |                                                                   |
|--------------------------------------------------|-------------------------------------------------------------------|
| <b>일자</b> 2024년 4월 4일<br><b>장소</b> 꿈사랑학교 온라인 강의실 | <b>참석자</b> 꿈사랑학교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br><b>내용</b> 꿈사랑학교 2024학년도 교육과정 안내 |
|--------------------------------------------------|-------------------------------------------------------------------|



##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교육



꿈사랑학교에서는 소속학교에서 건강장애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우리 학생들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학교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직접 방문을 해서 실시하기도 하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본 연수를 통해 꿈사랑학교 원격수업 시스템에 대해 안내하고,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기 수원 2024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당교사 연수

꿈사랑학교 원격수업 시스템 이용  
및 위탁학생 관리 안내



### 2024학년도 소속학교 교사 연수 일정



일시 2024.03.22.  
주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소 평화의 전당 강의실

일시 2024.03.25.  
주최 경기도 의정부 교육지원청  
장소 줌(ZOOM)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 연수

일시 2024.04.04.  
주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소 줌(ZOOM)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 연수

일시 2024.04.22.~2024.05.10.  
주최 경기도 수원 교육지원청  
장소 유튜브 채널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연수

일시 2024.05.16.  
주최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소 줌(ZOOM)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 연수

일시 2024.09.03.  
주최 경기도 의정부 교육지원청  
장소 줌(ZOOM)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 연수



#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024년 3월 4일 꿈사랑학교에서는 따숨봉사회의 제10호 드신 편지 우체통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따숨봉사회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에 대해 편지를 보내면, 답장을 해주는 봉사단체입니다. 꿈사랑학교 학생,  
학부모님 중에서 고민이 있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다면 지금 '드신 편지'를 보내보세요.



**고민상담편지를 쓰면**  
(가족, 지인, 친구, 학업, 친구, 정서적 고민 등)  
누군가에게 **답장**이 온다?

이거  
**나** 이야기  
잘화점의 기적  
이야기  
아니냐구요?

**NO!**

이것은 바로  
**꿈사랑학교**와  
**따숨봉사회**의  
기적입니다.

**따숨봉사회란?**  
곳곳에 설치된 드신 우체통을 통해  
전달된 여러분의 고민 편지에  
대응한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손편지로 답장을 해주는  
이런 **드신편지**를 운영하고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 **드신편지** 답장 받는 방법 1>

**익명 보장** 편지내용...

**우선 편지를 적어요!**

< **드신편지** 답장 받는 방법 2>

**꿈사랑학교 주소로 쓴 편지를 보내요.**  
(주소: 2545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가락로 141 꿈사랑학교 2층 꿈사랑학교25451)  
① 답장을 받을 주소도 꼭 적어야 해요!  
② 편지 내용에 '드신편지'를 쓴다는 주제를 써주세요!  
③ 꿈사랑학교가 받은 편지는 '드신편지'로 분류되어 1주일 내로 답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④ 편지 내용을 지인, 지인, 친구, 학업, 친구, 정서적 고민 등 누구나 털어놓고 싶다면 지금 '드신 편지'를 보내보세요.

< **드신편지** 답장 받는 방법 3>

**와 2~3주 후,  
정성 어린 답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드신편지**와 함께  
마음 편한 위로를 받아보세요!

**발하는 곳**

우선 답장이 전달되어 있고  
시원하게 전달된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 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것
- ② 마음 편한 곳과 위로가 필요할 때
- ③ 학업, 친구, 지인, 학업, 친구, 정서적 고민 등 누구나 털어놓고 싶다면 지금 '드신 편지'를 보내보세요.
- ④ 답장을 받을 주소도 꼭 적어야 해요!
- ⑤ 편지 내용에 '드신편지'를 쓴다는 주제를 써주세요!

(대한적십자사 꿈보대사  
참여하신 후원)



## 함께하는 즐거움

2024학년도에는 세 번의 체험학습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월 27일, 5월 11일에 있었던 1학기 체험학습은 삼각김밥 만들기과 플레이콘 만들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2학기에는 1차, 2차로 나누어 9월 21일, 9월 28일에 진행된 1차 체험학습에는 인절미 만들기과 점자 책갈피 만들기 활동을, 10월 19일, 10월 26일에 진행된 2차 체험학습에는 샌드위치 만들기과 카드케이스 만들기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개성이 담긴 다양한 작품들을 완성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2024학년도 1학기 체험학습 - 〈삼각 김밥 만들기〉



**송지유**  
(초2-1)

삼각김밥을 직접 만들어 먹어보았는데 맛있었어요.  
준비된 재료 외에 참치를 추가해서 만들어보았는데 맛이 더 좋았어요.

**양형준**  
(중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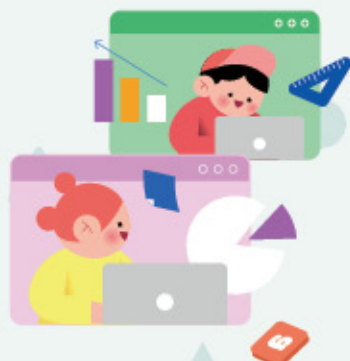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친구와 선생님과 함께 하는 수업이 좋았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삼각김밥 나눠줄 생각에 신이 납니다.  
함께한 시간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

**오다영**  
(고3-2)

삼각김밥을 처음 만들어봤는데 재미있었고 직접 만들어 먹으니  
더욱 맛있었어요. 여러 개 만들어서 부모님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도 가져가고 할머니도 드릴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 2024학년도 1학기 체험학습 - 〈플레이콘 만들기〉



**손아울**  
(초3-2)

플레이콘으로는 평소 좋아하는 컵케이크를 만들었는데  
핀들하게 붙이는 그 느낌이 너무 재미있고,  
결과물이 너무 귀여워서 스스로도 좀 놀랐어요.

**이도현**  
(중2-2)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여러 모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어요.

플레이콘은 어렸을 때부터 쉽게 접해볼 수 있는 소재인데,  
도구를 사용하고 도안을 보면서 만들어본 것은 처음이라  
새롭고 재미있었어요.

**공라희**  
(고2-3)



## 2024학년도 2학기 1차 체험학습 - <인절미 만들기>



**문보미**  
(초6-4)

반죽이 생각보다 만들기 어려웠어요. 너무 묽어서 실패할 뻔했지만 재미있었어요.

**박준혁**  
(중1-2)

평소 요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인절미를 만들 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직접 만든 떡을 엄마와 함께 먹을 생각을 하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김서연**  
(고2-1)

인절미는 반죽하는 게 힘들었지만 맛있게 완성돼서 가족들과 나눠 먹을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 2024학년도 2학기 1차 체험학습 - <점자 책갈피 만들기>



**박새벽**  
(초6-2)

점자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고 앞으로 생활 속에서 점자가 표현된 곳이 있으면 잘 살펴볼 것 같아요.

**김희성**  
(중2-3)

책갈피에 점자를 넣으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작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전이주**  
(고1-3)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점자'인데 그 점자를 직접 만들어보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내 이름을 점자로 표현하는 것도 어려운데, 실제 시각 장애인분들은 점자를 배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 2024학년도 2학기 2차 체험학습 - <아보카도 샌드위치 만들기>



**심재운**  
(초1-1)

샌드위치를 부모님께 만들어 드렸는데 내가 만든 샌드위치라서 엄마가 100배 더 맛있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대규**  
(중2-1)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점심 한 끼를 가족들에게 대접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전우진**  
(고2-4)

원래 아보카도 샌드위치 만들거지만 아보카도를 안 넣고 맛살도 넣어서 만들었는데 더 맛있었어요.

## 2024학년도 2학기 2차 체험학습 - <업사이클링 카드 케이스 만들기>



**김성찬**  
(초3-1)

계속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다르게 되어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더니 완성을 할 수 있어 뿌듯해요.

**백지민**  
(중3-5)

버려지는 소파의 가죽으로 카드지갑을 만드는 과정이 인상 깊었어요.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게 되어 유익했어요.

**정지안**  
(고3-1)

생각보다 다양한 물건들이 재활용된다는 사실이 재미있었어요. 꿈사랑학교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체험학습이다 보니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 재능을 찾아보는 시간

## 양모펠트 인형 만들기

[illegible]

The screenshot shows the GeoGebra software interface. On the left, there is a list of objects including 'Punto A', 'Punto B', 'Punto C', 'Punto D', 'Punto E', 'Punto F', 'Punto G', 'Punto H', 'Punto I', 'Punto J', 'Punto K', 'Punto L', 'Punto M', 'Punto N', 'Punto O', 'Punto P', 'Punto Q', 'Punto R', 'Punto S', 'Punto T', 'Punto U', 'Punto V', 'Punto W', 'Punto X', 'Punto Y', 'Punto Z', 'Punto A1', 'Punto B1', 'Punto C1', 'Punto D1', 'Punto E1', 'Punto F1', 'Punto G1', 'Punto H1', 'Punto I1', 'Punto J1', 'Punto K1', 'Punto L1', 'Punto M1', 'Punto N1', 'Punto O1', 'Punto P1', 'Punto Q1', 'Punto R1', 'Punto S1', 'Punto T1', 'Punto U1', 'Punto V1', 'Punto W1', 'Punto X1', 'Punto Y1', 'Punto Z1'. The main workspace shows a coordinate plane with a blue square and a point labeled 'A' at the origin (0,0).

The screenshot shows a web browser window displaying a presentation slide. The slide title is '독후활동지' (Post-reading activity sheet). The table on the slide contains the following information:

| 일제   | 2018.08.11                                                                                                                  | 제4차 | 1회 |
|------|-----------------------------------------------------------------------------------------------------------------------------|-----|----|
| 제목   | 간판                                                                                                                          | 책의  | 장르 |
| 주요내용 | <p>간판의 역사와<br/>간판의 종류<br/>간판의 사용법</p>  |     |    |
| 비고   |                                                                                                                             |     |    |

On the right side of the browser window, there is a vertical stack of four small video player windows, each showing a different person, likely participants in a virtual meeting or class.





# 나를 찾아가는 시간

꿈사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고자 진로 상담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여 스스로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학년도 진로 상담 수업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10차시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매주 담임선생님, 학급 친구들과 함께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 관련 영상을 시청하며 다양한 직업을 간접적으로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꿈사랑학교는 학생들이 빛나는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자신의 미래를 탐색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회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나의 장래 희망인 게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과 내 꿈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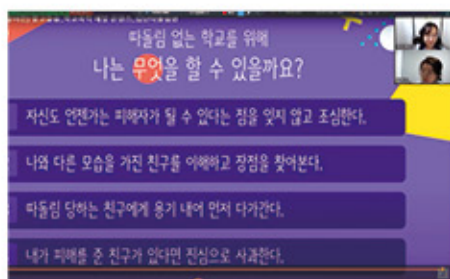
"선생님과 수업시간에 하지 못한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서 좋아요."

"직업에 대한 편견을 떨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자치적응활동 공감하며 말해요.

꿈사랑학교에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자치 적응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24학년도 자치 적응 활동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총 10차시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상담선생님과 매시간 관련 주제에 대한 영상을 보고 퀴즈를 풀어보며 의사소통역량을 키우고 학교폭력 발생 시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 선생님과 친구와 함께 감정 조절이나 학교폭력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

“ 수업을 듣고 나니 기분이 나쁘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 앞으로 친구들을 웃게 만드는 방법을 잘 활용해서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요. ”

“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감정에 공감하며 잘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 조절 방법을 알게 되어 좋았고,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잘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감정을 조절하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 본 것과 학교폭력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

“ 딱딱한 수업이 아닌 상담처럼 많은 얘기를 하며 경험을 공유하고, 마음속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음도 얻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어요. 활동하면서 말하는 것도 많이 배우고 느꼈던 것 같아서 좋아요. ”





## 영어로 놀자!

꿈사랑학교는 '블루프린트 컨설팅'과 협력하여, 2020학년도부터 꿈사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영어 회화 멘토프로그램 'ENGLISH PLAYGROUND'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수준의 자원봉사자가 멘토가 되어 각 학생들의 실력에 맞는 맞춤형 영어 회화 수업을 진행하며, 그룹 수업을 통해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회화 연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에는 28명, 2학기에는 23명의 학생들이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떤 목표로 수업에 임했는지 다짐을 들어볼까요?

**오시우(초5-2)** 이 프로그램과 수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영어를 더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김다열(초5-3)** 올해 목표가 영어로 영화 보기예요. 영어를 배워서 치료 후 미국 여행을 가고 싶어요.

**문보미(초6-4)** 외국어는 필수 영어 회화 시 두려움 도장 깨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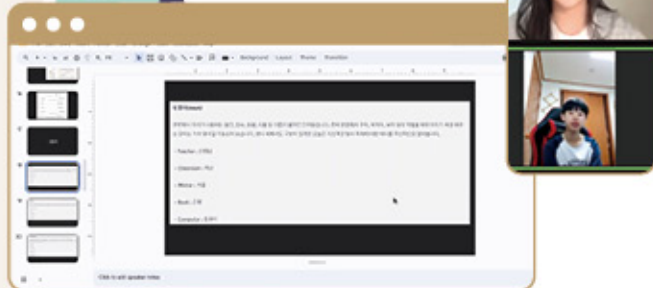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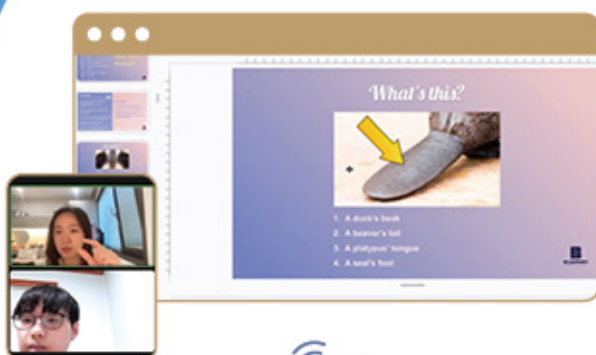
**김라임(중2-3)** 제 꿈은 해외에 나가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자신감과 친근감을 가지고 싶어요.

**최서은(중3-2)** 영어로 프리토킹을 하고 싶어요.

**백지민(중3-5)** 문법이 아닌 일상생활에 필요한 회화를 배우고 싶고, 무엇보다 영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서지원(고1-4)** 예전에도 회화 수업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영어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열심히 해서 영어 실력을 향상하겠습니다.

**공라희(고2-3)** 영어를 좋아하지만 잘하지는 못해요. 영어와 조금 더 친해지고 싶어요.



2024학년도 꿈사랑학교 수련회

## 다시 만나 정말 반가워요!



2023년, 코로나로 인한 긴 기다림 끝에 오프라인 하계수련회에서 만난 꿈사랑학교 가족들,  
2024년에는 경남 산청에서 1년 만에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13개 시·도  
(경남,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제주) 각지에서 먼 길을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주신  
꿈사랑학교 가족들의 즐겁고, 따뜻했던 그 현장으로 한번 구경 가볼까요~  
다시 만나 정말 반가워요!





입소식



수련회 1일차

풍선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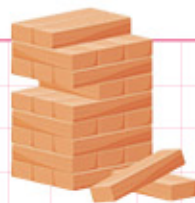


키링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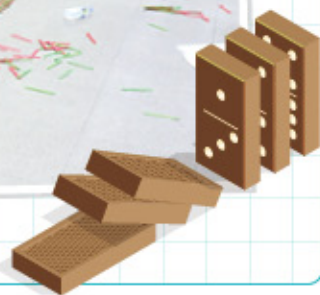
## 대형젱가



## 에코백 꾸미기



## 스틱밤 도미노





## 페이스 페인팅



## 학부모 간담회



## 학부모 특강 (강원석 시인)





MC들의  
특별 무대



꿈사랑학교  
친구들의  
장기자랑





선생님들의  
특별 무대



수련회 2일차

선생님과  
산책



대학입시  
설명회





박물관  
관람



보고 싶었던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 목혀둔 얘기도 나누고,  
다양한 활동으로 즐거움이 가득했던 소중한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꼭 다시 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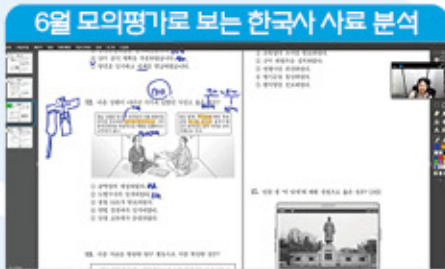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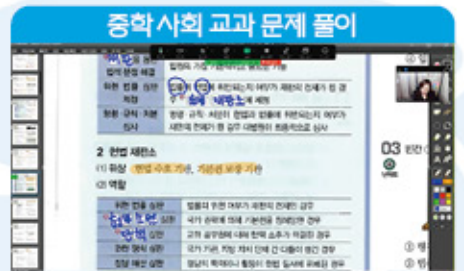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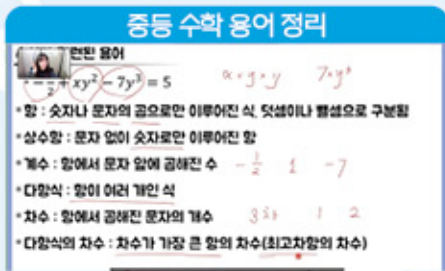






# 덥다 더워 여름 방학 때 뭐하지?

친구들! 지난 여름 너무너무 더웠죠? 지구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어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을 것이라고 해요.  
지금부터라도 환경과 지구를 생각하는 우리가 됩시다!  
덥다고 방에서 게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꿈사랑학교에서는 방학에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친구들의 알찬 방학을 위해 선생님들이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여름 교실에는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을까요?



부족한 학습도 보충하고, 다른 반 친구들과 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들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니  
2025학년도 온라인 여름 교실, 온라인 겨울 교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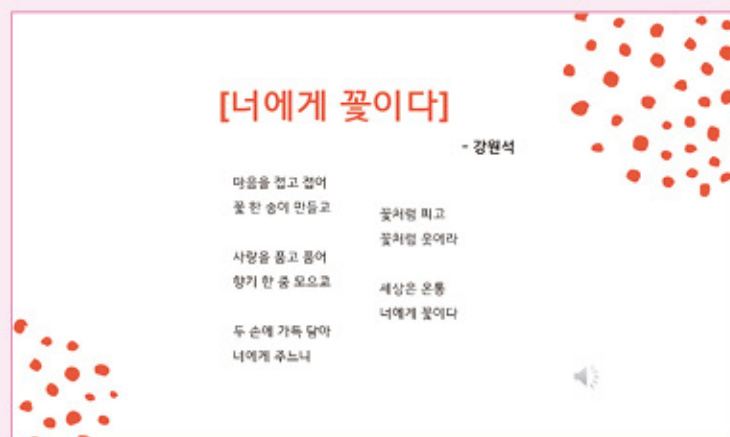


## 너의 꿈을 그리렴

2024학년도 진로·명사특강은 누구보다도 우리 친구들의 꿈을 지지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오셨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시를 읽는 사람은 꿈을 색칠합니다. - 1학기



6월 11일에 실시된 2024학년도 1학기 진로·명사특강은 꿈사랑학교의 명예 교사이신 강원석 시인님을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시인님은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며 시 2편을 꿈사랑학교에 헌정해주셨고, 특강을 통해 소개한 '피카소의 꿈'이라는 시 외에도 우리 친구들의 꿈을 응원하는 예쁜 시들을 많이 작사하셨습니다.

#### 강원석 시인 약력

- 20여년간 국회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등에서 일했으며, 지금은 어릴 때의 꿈인 시인으로 한해 100회 이상의 강연을 하며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 2016년 첫 시집 『그대가 곁에 없어 바람에 꽃이 집니다』를 비롯해 총 일곱 권의 시집을 펴냈다.
- 시는 가수 변진섭, 태진아, 추가열, 윤복희, 조성모 등이 노래로 부르기도 했으며, TV 드라마 OST의 가사로도 사용되었다.
- 열린 의사회 이사,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꿈사랑학교 명예 교사를 맡고 있다.

## 〈피카소의 꿈〉

아이야 아이야 그림을 그리렴  
예쁜 꽃들이 피어 들판을 그리고  
저녁노을 물들어 하늘을 그리듯

아이야 아이야 보랏빛 자줏빛  
꽃처럼 노을처럼 이 세상 가득히  
너의 꿈을 그리렴

꿈을 꾸는 피카소가 세상을 그리듯  
아이야 너도 그렇게 그림을 그리렴

하늘 높이 날아가는 새들의 꿈처럼  
아이야 세상을 향해 네 꿈을 펼치렴

[꿈사랑학교 명사 진로 특강]

“시를 읽는 사람은 꿈을 색칠합니다”

강원석 시인



### 박시안 (초1-1)

‘피카소의 꿈’에서 나오는  
‘아이야, 꿈을 그려라’라는 말이  
힘이 되었어요. 제 꿈은 축구선수인데  
매일 축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원유건 (초2-1)

평소 시에 대해 잘 몰랐는데  
노래로 시를 들을 수 있어 너무 아름다웠어  
요. 다른 시에 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  
간이 되었어요.

### 심영섭 (초6-3)

엄마와 편지를 자주 주고받고 있어서 저도  
선생님 시처럼 비유를 많이 사용한답니다.  
우주, 달, 별, 하늘, 바다, 나무 등 선생님  
시를 들으니 엄마가 저에게 말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좋았어요.

### 이다연 (중1-3)

시가 노랫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꿈을 펼쳐나가라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에  
힘이 생겼어요.

## 소감 한마디

### 김동건 (중2-2)

강의를 듣고 나의 꿈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어요. 시인님께서  
작사하신 시를 읽으니 미래에 대해  
희망이 생겼어요.

### 김태현 (고2-3)

내가 품었던 수많은 꿈, 그 꿈은 사라진 게 아니야. 단지 잊고  
있었을 뿐이야. 한참 고민이 많은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들과  
내가 지나왔던 길을 뒤돌아볼 기회를 주신 것 같아 좋았어요.  
내 꿈은 무슨 색깔까,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까 강의를 마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붉은색, 붉은 태양이 떠올랐어요.  
활활 타오르는 태양처럼 내 미래도 밝기를 바라며...

### 김태원 (중3-1)

고등학교 입학 전인 나에게 꿈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강의였어요.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한 자신이 자랑스러울  
정도였어요. 시인님의 조언들을 몇 번이고 되뇌면서  
앞으로 꿈을 이루는 데 성공하겠다 다짐했어요.



##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 2학기

10월 16일에 실시된 2024학년도 2학기 진로·명사특강은 꿈사랑학교의 입시자문위원이신 알찬교육컨설팅 전관우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님은 우리 학생들의 학년 군에 맞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탐구와 진로 이야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와 대학 입시 이야기'를 강의해주셨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꿈꾸며 나아가길 응원합니다.

| 영역 | 현행(~2027수능)                                              | 개편안(2028수능~)                       |
|----|----------------------------------------------------------|------------------------------------|
| 국어 | 공통+2과목 중 택1<br>• 공통: 독서, 문학<br>• 선택: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 공통<br>(화법과 작문, 독서와 작문, 문학)         |
| 수학 | 공통+3과목 중 택1<br>• 공통: 수학 1, 수학 2<br>• 선택: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 공통<br>(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
| 탐구 | 사회·과학<br>17과목 중 최대 택2                                    | • 사회: 공통 (통합사회)<br>• 과학: 공통 (통합과학) |

### 정지우 (초2-2)

스스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진로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프기 전에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2년 동안 병원 생활만 하게 되면서 서서히 책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투병 생활이 길어질수록 직접 경험을 하기가 어려운데 간접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 정우진 (초3-2)

진로명사특강 시간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시 한번 나의 진로에 대해 잘 알게 된 시간이었고, 특강을 해주신 선생님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막막했었는데 선생님의 답변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 한성현 (초5-3)

이번 시간을 통해 진로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고, 앞으로도 나의 꿈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 개그우먼이라는 꿈은 어떤 공부를 많이 해야 하나요?!

### 조찬호 (중6-4)

막연히 공무원이라는 장래희망만 정했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 최의윤 (중1-3)

입시 전략뿐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진로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어 뜻깊었어요. 고교학점제가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기대되고, 대학 입시 전형의 다양성과 고교학점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학습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윤하 (고1-3)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진로나 대학 입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하던 중 이렇게 뜻깊고 도움이 되는 특강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노력할 게 많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 전관우 강사님 약력

- 20여 년간 학원 강사를 하셨으며, 2010년부터 진로·진학 컨설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 교육잡지와 교육신문에 글을 연재하기도 하셨고, 학생부와 대입에 관련된 책도 집필하셨다.
- 현재 알찬교육컨설팅 대표, 입시컨설팅 창업 교육과정 교수, 한국교육컨설턴트협회 전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 현재 꿈사랑학교 입시자문위원을 맡고 계시며, 꿈사랑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입시 진학 상담을 제공해주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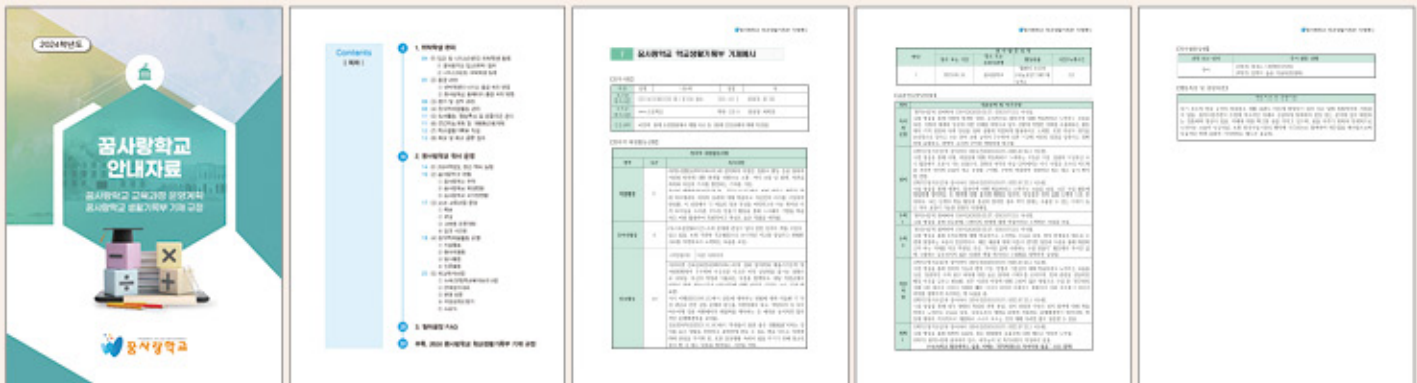
## 우리가 성장해나가는 모습들

### 학교생활기록부

꿈사랑학교에 위탁된 건강장애 및 장기 결석 학생들은 꿈사랑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적 경험과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탁된 학생들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학생들의 소중한 활동들을 기록하고, 학생들이 치료를 마치고 소속 학교로 복귀하였을 때 학생의 교육적 경험에 대한 정보가 올바르게 소속 학교 교사에게 제공되어 원활한 학교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꿈사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연 1회 학생들의 소속 학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년 초 또는 입교 시기에 각 가정과 소속 학교 담임 교사에게 위탁학생 관리 및 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한 안내 자료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작성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2024 학교생활부기재요령(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위탁학생, 병원학교 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처리 (초등학교 p.156, 중학교 p.182, 고등학교 p.198)



### 학업성취도평가

꿈사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점검하여 학습 능력을 높이고, 외재적 학습 동기를 형성하며, 소속 학교 복귀 후 치르게 될 평가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학기당 1회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꿈사랑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는 소속학교의 평가와는 다르며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대상자

꿈사랑학교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중·고등학생 전학년

#### 시행 과목

꿈사랑학교에서 개설된 전 교과 과목

#### 시행 개요

학기별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과목별 교사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출제함.  
시험 결과는 개별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함.

#### 시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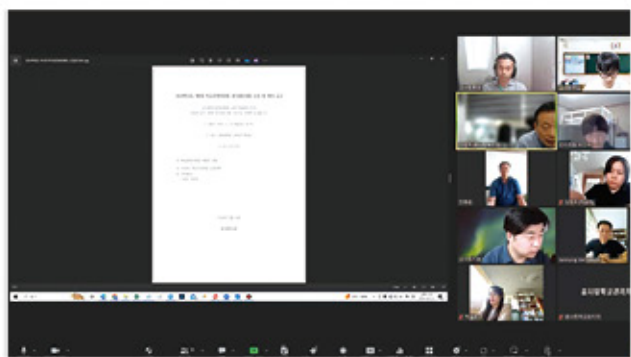
객관식 및 서답형 문항 혼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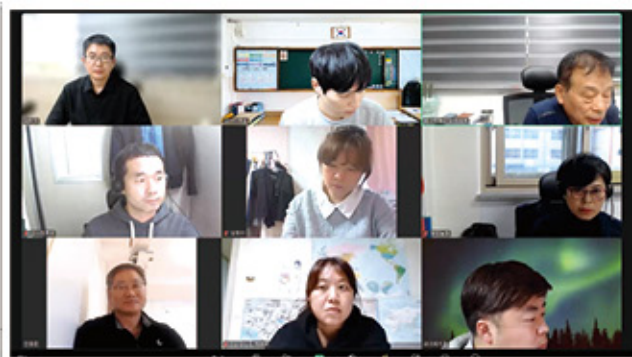
##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꿈사랑학교 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에 민주성과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2024학년도 1회 학교운영위원회

**날짜** 2024년 5월 23일  
**장소** 꿈사랑학교 온라인 회의실  
**안건** 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  
 나. 2024년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  
 다. 하계수련회 관련 보고



### 2024학년도 2회 학교운영위원회

**날짜** 2024년 11월 15일  
**장소** 꿈사랑학교 온라인 회의실  
**안건** 가. 학사일정 변경 (24.12. 병원방문 일정)  
 나. 꿈사랑학교 운영비 잔여 예산 변경  
 다.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센터 설립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꿈사랑학교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제18회 꿈사랑학교 문예창작대회 결과

| 글 부문 심사 결과 |                 |                                 |
|------------|-----------------|---------------------------------|
| 글 부문 대상    | 그림을 그리는 사람      | 고1-3 박윤하 경남                     |
| 초등저학년 최우수  | 추억              | 초3-2 정우진 부산                     |
| 초등고학년 최우수  | 무지개다리를 건너서 온 친구 | 초6-3 전예슬 경북                     |
| 중등부 최우수    | 꽃샘추위            | 중3-5 백지민 경남                     |
| 고등부 최우수    | 늘어진 그녀의 손을 붙잡고서 | 고1-4 문혜빈 경기                     |
| 초등저학년      | 운문              | 금 퇴원한 날 초2-2 김주환 경기             |
|            |                 | 은 나의 친구 이불 초2-2 정지우 충북          |
|            |                 | 동 에어컨이 필요해 초2-2 양지환 울산          |
|            |                 | 동 꿈사랑학교 초2-2 윤하람 경기             |
|            |                 | 동 가을 초3-1 김시울 경기                |
|            | 산문              | 금 영지의 생활 초2-2 김지함 경기            |
|            |                 | 은 꼬마 대장님 초3-1 이소명 전북            |
|            |                 | 은 존에게                           |
| 초등고학년      | 운문              | 금 움직이는 마음 초5-1 이한비 경기           |
|            |                 | 은 비행기 초5-3 장성민 경기               |
|            |                 | 은 좋겠다 초6-3 전예슬 경북               |
|            |                 | 동 좋은 마음 새싹 초5-3 김아영 울산          |
|            |                 | 금 갈등 초5-2 오시우 경남                |
|            | 산문              | 은 제주워터월드 초5-3 장성민 경기            |
|            |                 | 동 생애 첫 뮤지컬에 감동받았던 일 초6-3 강서진 경기 |
|            |                 | 은                               |
| 중등부        | 운문              | 금 새벽 중1-2 문지우 경기                |
|            |                 | 은 감사합니다 중2-2 김규리 경기             |
|            |                 | 동 나의 힘은 자연으로 부터 중2-2 배지형 경기     |
| 고등부        | 운문              | 금 흐르는 시간, 자라는 마음 고3-3 천가영 광주    |
|            |                 | 은 정전 고2-1 김서연 경기                |
|            |                 | 동 파도와 포말 고2-4 이채은 경기            |
|            |                 | 금 Dear. My __ 고1-4 김연희 경기       |
|            | 산문              | 은 Hello K 고3-2 이시연 경기           |
|            |                 | 은 기적 고1-3 박윤하 경남                |
|            |                 | 동 모두 고마워 고2-3 황주희 경기            |
|            |                 | 은                               |

| 글 외 부문 심사 결과 |                                      |                                          |
|--------------|--------------------------------------|------------------------------------------|
| 글 외 부문 대상    | 병원소풍 5년차 12살 빵이의 그림일기(with 꿈사랑학교 노래) | 초5-3 방서영 경기                              |
| 초등고학년 최우수    | 어린 독립운동가들                            | 초5-1 문가현 전남                              |
| 중등부 최우수      | 소원을 이루어주는 별뚱별                        | 중1-2 이유진 경남                              |
| 고등부 최우수      | 짝사랑                                  | 고3-2 권대영 경기                              |
| 초등저학년        | 그리기                                  | 금 꿈사랑학교 초2-2 정지우 충북                      |
|              |                                      | 은 연예인의 이미지는... 초3-2 정우진 부산               |
|              |                                      | 동 해피 추석 초2-2 윤하람 경기                      |
|              |                                      | 금 꿈사랑학교로 모여라 초1-1 양무길 경남                 |
|              | 만들기 동영상                              | 은 봄의 양갱송 초1-1 임예봄 경기                     |
|              |                                      | 동 해바라기 꽃다발 초2-2 윤하람 경기                   |
|              |                                      | 금 완치되어 퇴원을 꿈꾸며 초6-4 조찬호 전북               |
|              |                                      | 은 정의의 수호자 초5-1 김지혁 울산                    |
| 초등고학년        | 그리기                                  | 은 꿈의 꼬끼리 초4-1 이상현 울산                     |
|              |                                      | 동 어둠 속의 빛 초6-2 김제민 경기                    |
|              |                                      | 동 보리보리 빵이토끼 초5-3 방서영 경기                  |
|              |                                      | 금 희망을 주는 무지개떡 이야기 초6-3 전예슬 경북            |
|              | 만들기 동영상                              | 금 친구들이 친하게 지내자 초5-3 김우빈 경기               |
|              |                                      | 은 밤들이 초4-2 전준우 경남                        |
|              |                                      | 은 아빠의 퇴원 선물 초5-3 윤혜영 제주                  |
|              |                                      | 동 순수한 사랑 초5-1 김지혁 울산                     |
| 중등부          | 그리기                                  | 동 곧 좋은 날이 올 우리들 초6-4 김유이 대구              |
|              |                                      | 금 꽃길 중1-1 이새봄 경북                         |
|              |                                      | 은 마법사 소녀 중2-2 구유나 경북                     |
|              |                                      | 동 나의 최애 중2-2 이지율 경기                      |
|              | 만들기 동영상                              | 동 따뜻한 크리스마스 중2-2 배지형 경기                  |
|              |                                      | 은 투병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나의 노래 중1-2 안지환 경기 |
|              |                                      | 동 파란 앵무 바다 중2-2 이지율 경기                   |
|              |                                      | 동 봄 중2-2 배지형 경기                          |
| 고등부          | 그리기                                  | 금 나의 희망 고2-2 복혜은 전남                      |
|              |                                      | 은 데이지 고1-3 박윤하 경남                        |
|              |                                      | 동 어서 오세요 행복을 드리는 빵집입니다 고3-2 송은서 경기       |
|              |                                      | 금 태양 물고기 기타 커버 고2-4 이채은 경기               |
|              | 만들기 동영상                              | 은 집에서 간단하게 휘낭시에 만들기 고3-2 송은서 경기          |
|              |                                      | 은 따뜻한 마음은 내 삶도 따뜻하게 만든다 고1-3 박윤하 경남      |
|              |                                      | 동 나만의 놀이공원 고2-3 강세연 경기                   |
|              |                                      | 동 나의 희망 고2-2 복혜은 전남                      |

※장려상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





## 글 부문 수상작품



대상

### 그림을 그리는 사람

고1-3 박윤하

저도 한때 주저앉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더니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꿈사랑학교 언니, 오빠 그리고 친구 동생들 포함 이 세상 모든 친구들이 주저앉지 않고 마음껏 넓은 세상을 날아다니며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자

예쁜 꽃들 피어 들판을 그리듯

별과 달이 밤하늘을 그리듯

저녁노을 내 눈동자를 그리듯

핑크빛 보랏빛

꽃처럼, 별과 달처럼 이 세상 가득히

너의 꿈과 희망을 그리렴

꿈을 꾸는 사람처럼

그림을 그리는 사람처럼

너도 그렇게 너의 세상을 그리렴

하늘 높이 나는 나비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처럼

네 꿈을 그리렴

초등저학년 최우수상

### 추억

초3-2 정우진

우리는 종종 소중한 추억을 잊고 살고 있고 또 지금 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잊고 살고 있습니다. 추억의 소중함과 그 소중한 추억은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내용을 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추억은 무엇일까?

어릴 때 엄마 아빠와 키즈카페를 갔을 때?

아니면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과 인생네컷을 찍을 때?

아니야.

추억은 지금이야.

초등고학년 최우수상

### 무지개다리를 건너서 온 친구

초6-3 전예슬

저는 고마운 친구 덕분에 심장이식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은 생각에 쓴 소설입니다. 그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 <꿈속의 친구, 생명의 은인>

요즘에 꿈에서 자주 뵈곤 한다. 바로 나에게 하트 선물을 주고 간 친구, 하늘이.

하늘이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지금 나는 14살. 벌써 졸업식을 마쳤다. 중학생이라서 혼자서도 잘 생활하고 있다. 요즘에는 자주 하늘이 생각이 난다. 잠이 안 와서 책을 읽다가 창밖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 하늘이가 보고 싶다. 하늘이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면 좋을 텐데.....’

죽은 사람을 다시 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기적이 아닌 이상 일어날 수가 없다. 꿈 속의 친구.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 내 눈은 벌써 반쯤 감겨 있었다.

“에이~ 유령도 아니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잠이나 자자.”

나는 괜한 기대를 버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천국에 있던 하늘이가 무지개 미끄럼틀을 타고, 내 집 문 앞으로 온 것이다! 솔직히 지금 이 밤에 온다는 건 좀 실례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늘이가 온 줄도 모르고 자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딩딩딩딩~딩딩딩딩~.”

벨소리에 나는 잠이 깼다. 아니, 웬 이 야밤에 벨소리냐고!

‘혹시 유괴범이면 어쩌지?’ 나는 살짝 겁이 났다. 엄마가 낯선 사람에겐 절대 문 열어주지 말랬다. 이모든 삼촌이든 그 누가 됐든. 그래도 난 궁금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조심 안방을 빠져나왔다. 불을 켜고 재빨리 현관문을 열었다.

“철커덕.”

“으...으악!”

그 순간, 나는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 하늘이가 내 눈앞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말했다.

“너..너 하늘이? 얘 니가 왜 여기 있어? 이거 꿈이지?”

“넋~ 조용히 해~ 밤이잖아. 그리고 꿈 아니야!”

하늘이는 씨익 웃었다. 사실이라는 게 좋으면서도 소름이 끼쳤다. 그래도 좋았다. 하늘이가 왔으니까.

“들어와.”

나는 웃으며 안으로 들었다. 시계는 3시 30분을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하늘이가 어떻게 우리집까지 왔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하늘이에게 물었다.

“너 말이야. 어떻게 우리집까지 왔어? 천국에 있었잖아.”

“하나님이 너가 날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아시고 날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무지개 미끄럼틀을 타고 왔지.”

“오~신기하다.”

그렇게 나와 하늘이는 침대에서 붓물 터지듯 이야기를 나눴다. 정말 행복했다. 근데 뒷목이 뻑적지근한 게 뒷골이 당겼다. 그때, 하늘이가 내 얼굴을 보고 물었다.

“슬기야, 너 어디 아파?”

나는 인상을 찡그리며 말했다.

“응, 머리가 아파.”

“앗, 미안. 얼른 자. 내일 얘기하자.”

“그래, 너도 잘자~”

“응, 너도.”

그렇게 우리는 잠이 들었다. 하늘에 별 두 개가 떠 있었다. 마치 우리처럼.

### <쏟아지는 편지들>

“어디 있지? 어? 찾았다!”

나는 예전에 하늘이에게 썼던 편지들을 주려고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마음으로만 전달하려던 걸 실제로 전해주니 기분이 좋았다.

“하늘아, 여기. 좀 오래됐지만, 너한테 주는 편지야.”

“정말? 고마워.. 잘 읽어볼게. 우아! 이게 다 몇 통이야?” 하늘이는 감동받은 것 같았다. 하늘이는 내 편지를 읽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마음의 시소를 탔다.

“근데, 너 글 진짜 잘 쓴다.”

“고마워.” 하늘이의 칭찬을 들으니 괜히 쑥스러웠다.

편지는 끝도 없이 쏟아졌다. 편지는 세어보니 백 통이었다. 하늘이는 고마워했다.

“정말 고마워, 슬기야. 이거 내가 잘 간직할게!” 하늘이가 좋아해 주니까 나도 뿌듯했다. 하늘이가 말했다.

“앞으로도 내가 준 심장 잘 지켜줄 거지? 나도 같이 기도할게.”

“당연하지! 그리고 같이 기도해줘서 고마워. 나도 널 위해서 기도할게.”

“고마워.”

나는 우리집 앞에 우체통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이랑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게.

### <너의 마음속에 내가 있어>

드디어 내가 싫어하는 날이 왔다. 바로 조직 검사하는 날! 매번 하는 거지만 할 때마다 무섭다.

“하늘아, 내가 진짜 잘 할 수 있을까?”

“그럼! 넌 언제나 잘해왔잖아~ 내가 천국에서 같이 기도할게. 난 다시 천국으로 가야 해.”

“그럼? 나는? 난 어쩌라고?” 나는 겁에 질린 얼굴로 물었다. 그러자 하늘이는 이렇게 말했다.

“걱정 마. 너는 잘해왔잖아. 그리고 네가 치료받는다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너의 마음속에 항상 내가 있어. 그리고 엄마,아빠도 너랑 같이 있잖아. 네가 검사 끝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러니까 힘내.” 하늘이의 말을 듣고 나니 조금 용기가 생겼다.

“고마워, 하늘아. 나 잘하고 올게.” 나는 손을 흔들며 하늘이와 헤어졌다.

하늘이는 문앞에서 나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리고 공포의 시간이 왔다. 바로 시술 시간! 하지만 나는 잠드는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말이 그렇지 어떻게 나 혼자 있냐고! 그때 내 마음속에서 하늘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손 잡아 줄게.’

또 한 번의 목소리가 들렸다. 치료가 끝나고 됐다. 내가 괜 걸 알았는지 엄마가 말했다.

“슬기야, 깰어? 여기 병동이야. 더 자.”

“응...”

나는 앓는 소리만 하고 가만히 누워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무섭다고 했을 때, 손잡아 준 게 하늘이 너였구나..’

비록 꿈이었지만 생생했다. 그것도 아주 많이.....

하늘이가 나랑 같이 있다는 게 힘이 됐다.

‘너의 마음속에 내가 있어.’

이 말 한마디가 나에겐 큰 위로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잠이 들었다.

### <다시 만날 때까지>

“음음음~룰루랄라~~”

나는 아침부터 콧노래가 나왔다. 오늘이 하늘이랑 마지막 날인 걸 모른 채...

하늘이랑 같이 아침을 먹고, 대화를 나눴다.

“저..하늘아.”

“응?”

“나 사실, 이때까지 심장 지키면서 많이 힘들었어.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외로워서 울고 싶은 적도 있었고, 관리도 해서 더 힘들었었어. 물론, 지금도 병원에 다니고 치료받는 게 싫지만.....” 하늘이는 내 이야기를 고스란히 다 들어주었다.

“그랬구나. 심장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너 보면 대단해. 잘했어. 잘하고 있어.”

“으앙~하늘아. 나 진짜진짜 병원 다니기 싫어. 물론 병원 다니는 게 감사한데 치료할 때마다 긴장되고 싫어. 그래서 가끔 울고 싶을 때도 있고, 힘들어.”



“울지마~ 니 마음 다 이해해.”

하늘이는 날 안아주었다. 남극에서 아기펭귄들이 엄마펭귄의 온기를 느끼는 것 같았다.

“참, 그리고 난 이제 천국으로 다시 가야 해.”

나는 깜짝 놀랐다.

“왜..왜?”

“내가 가야될 자리니까. 대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예수님도 널 위해서 기도하실 거야.”

순간, 나는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 머리에 돌을 얹은 기분이 들었다. 하늘이가 간다니!

하늘이는 나에게 웃으며 물었다.

“지금처럼 심장 잘 지켜줄 거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나는 심장 지킴이니깐! 그럼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응, 그리고 이거 받아.”

“이게 뭐야?”

편지였다. 나는 얼른 펼쳐 보았다.

슬기에게

슬기야, 안녕? 나 하늘이야. 심장 지키느라 고생이 많지? 네 맘 다 이해해. 그래도 너무 힘들어하지마. 동굴 앞에는 무지개가 있는 법이니깐!

나도 항상 응원할게. 내가 준 심장, 앞으로도 잘 지켜줄 거지? 너만 믿을게. 사랑해.

-하늘이가-

내가 편지를 읽는 사이 하늘이는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하늘아!”

“슬기야!”

우린 서로 안았다. 서로의 마음은 통하기 마련이다. 그 사람의 진심을 알기에 나 또한 하늘이에게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하늘이에게 말했다.

“내가 하트 잘 지켜줄게.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 천국에서 보자!”

“또 봐!”

그렇게 하늘이는 무지개다리를 건너 사라졌다.

‘하늘아, 사랑해. 고마워.’

나도 하늘이가 준 편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하늘이를 만났으니 심장도 더 잘 지키고, 운동도 열심히 할 거다. 하늘이를 만남으로써 내 마음은 변화됐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심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비록,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나는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기에, 나를 응원하는 하늘이가 있기에, 나는 오늘도 심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하트 지킴이나슬기, 파이팅!

중등부 최우수상

꽃샘추위

중3-5 백지민

꽃샘추위를 주제로 새싹은 아직 성숙해지지 않은 ‘나’, 꽃은 성숙해진 ‘나’, 추위는 ‘나’에게 온 아픔(위기)으로 비유하여 시를 썼습니다. 시에서 이른 봄은 어린 ‘나’로 표현했고 마지막 ‘얼음 속의 꽃’은 고통을 이겨낸 ‘나’로 극복 후에 피어나는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표현했습니다.

이른 봄,

하루하루

성장하고

하루하루

이빠지며

하루하루

꿈을 꾸던

이제 꽃이 될 날 만 기다리던

조그만 새싹,

평화롭던 새싹에겐 위기가 찾아왔다.

꽃샘추위.

새싹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새싹이 꽃이 되지 못할 만큼,  
새싹이 죽어버릴지 모를 만큼

추위는 세고 강했다.

하지만 새싹은

더 강하게

더 열심히

더 노력해

추위를 이겨냈고

꽃이 되었다.

얼음 속의 꽃.

## 늘어진 그녀의 손을 붙잡고서

고1-4 문혜빈

우리는 종종 소중한 추억을 잊고 살고 있고 또 지금 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잊고 살고 있습니다. 추억의 소중한함과 그 소중한 병원에서 친해진 할머니의 손은 붙잡고 나는 대화입니다. 할머니는 퇴원할 필요 없다고 병원에서 죽겠다 하셨지만 이내 마음을 바꾸시는 모습에 감동하여서 적었습니다. 꿈사랑학교 학생들도 희망을 얻었으면 합니다.

저 너머 창문으로 들리는 짓고 있는 강아지  
아빠와 산책하며 웃는 아들의 소리  
사람들에게 밝히며 제 일을 다하는 낙엽

우연히 스친  
할머니의 눈웃음에서 나온 몽글함 때문에  
할머니의 미소에서 나온 인자함 때문에

그립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나가고 싶잖아요

내게 왜 미련을 만드는거  
내게 왜 기대를 만드는거

내가 처음 잡은 손을 사랑하게 되어서

※ 지면상 다 실지 못한 수상작품은 꿈사랑학교 홈페이지의 꿈사랑예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제18회 꿈사랑학교 문예창작대회 입상작 글 부문 심사평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명형대

우리나라에서 한강이라는 작가가 세계적인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노벨문학상 수상작이 세계 최고의 문학작품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문학인들이 희망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우리가 누리는 우리들의 사고나 문화가 우리의 글이 가능케 하는 경지에 있다는 사실은 오늘 여기 우리들의 문예 작품 글쓰기까지도 더욱 의미 있게 한다. 아직은 비록 서툴지만 글쓰기 그 자체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기 때문이다.

문예 작품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정성 들인 작품을 두고 더 나은 작품을 가려내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대체로 다 비슷한 경험과 감성 그리고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몇 편의 작품을 한 번에 제출한 경우, 좋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특정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좋다고 생각되는 작품을 골라 등위를 매겼다. 또 얼마나 성실하게 끝까지 글을 이어나갔는가 하는 것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여 좋은 점수를 주었다. 아무튼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깃들인 작품 한편한편을 몇 번이고 순서를 매겨 정리하였다.

참고로 여기에서는 제외하였지만, 박윤하의 “기적”(고교 산문)을 읽으면서 줄곧 머리를 떠나지 않는 생각을 덧붙여두고 싶다. 어린 윤하가 어떻게 이렇게 힘든 고통을 견디어 내어야 하는가 하는 투병예의 안타까움이다. 그리고 매년 그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가 하는 놀라움이다. 고통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또다시 희망을 품고, 또 이를 극복하는 일은 분명 끝까지 이겨내는 윤하의 의지라 생각된다. 우리의 글쓰기는 우리 자신을 성숙하게 하며 희망의 세계로 올려세우는 일이라 생각하며 박수를 보낸다.

### 1. 전체 대상 작품 : “그림을 그리는 사람”(운문) 박윤하(고1-3)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이야기 될 수 있다. 세계가 민주화되면서부터 사람들 개개인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개인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은 이미 다 아는 바이다. 작품을 주제 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작품 ‘좋다’,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점에서 그러할까를 생각해보자.

박윤하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미적인 관점에서 보아 다른 작품들보다 풍부한 이미지와 상상력을 부여한 비교적 좋은 작품이다. 먼저 핵심적인 의미로서 이 시를 바라보면 시에서 말하고 있는 ‘나’(시적 화자)는 작품의 주제, 즉 그 청자(聽者, 상대방)를 향하여 “너의 꿈과 희망”의 “세상”을 펼쳐라 말하는 소망의 세계를 말하는 시이다. ‘네가 원하는 꿈, 희망의 세상’을 더 깊이 파고들면 첫째 <누가> - 그림을 그리는 창조자인너, 꿈꾸는 주체가, 둘째 <어떻게> - ‘들판’, ‘밤하늘’, ‘눈동자’를 그리듯이 그리는 셋째 <무엇을> - 세상을 그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목적어 꿈과 희망의 세상을, 더 간단히는 핵심어인 ‘세상’을 언급한 이후에 다시 두 번째로 언급한 <어떻게>를 강조하고 있다. 높이 나는 나비처럼, 자유로운 새처럼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창조하고 창조하는 너를 축복하고 있다. 그것은 핑크빛과 보랏빛, 꽃과 별과 달로 현란하게 꾸며지고 장식된 세상이고 나비와 새처럼 가벼워져서 더욱 자유로운 그러한 세계가 된다. 이렇게 찬사를 보낸 글을 읽고 우리는 새삼 윤하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만약 우리가 사물을 아주 잘 들여다보면, 길썬에 떨어진 작은 씨앗 한 톨에서도, 우리는 이미 그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그에게 스미어 있음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을.

### II. 초등저학년 입상 작품

최우수 : “추억”(운문) 정우진(초3-2)

운문 금상 : “되원한 날” 김주환(초2-2)

운문 은상 : “나의 친구 이불” 정지우(초2-2)

시의 진정성은 어린아이의 그 순수성에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무슨 말일까? 초등에서 고학년으로,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 가면서 우리는 점점 그 어린아이의 눈동자에서 뻥뻥이는 맑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어린이가 세상을 알게 되면서, 당연히 배우고 알아야 하겠지만, 사물은 더 복잡하게 되어 조건이 붙고 단순하게 한 가지로만 말할 수 없게 되어 어릴 때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던 사물의 그 모습, 그 때 묻지 않은 순수함, 순진무구함을 멀리하게 된다. 세상일이 딱 한 마디로 그 정수(精髓)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참 단순하고 순수하고 때 묻지 않아서, 어른이 되면, 세상사를 복잡하게 바라보는 어른이 보면, 또 얼마나 그 순수함이 부럽고 돌아가고 싶은 세계로 느껴질까?

초등학교에서 저학년에 갈수록 그 아름다움은 빛난다. “추억”에는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그리고 현재는 우리 자신을 말해준다. 과거의 추억은 미래에 추억이 될 것이고 과거와 미래의 추억이 되는 것은 바로 지금 나에게 있다. “나의 친구 이불”에서도 이불은 아이가 좀 커서도 버리지 못하고 늘상 끌고 다니는 것이다. 아이를 감싸주던 과거이며 평생 함께하고 싶은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운문 동상 : “에어컨이 필요해” 양지환(초2-2)

운문과 산문의 구별은 간단히 말해 비슷한 음과 소리/음의 흐름이 일정한 나뭇의 규칙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흥겨움을 주는 것이다. 흔히 그냥 리듬이라 말한다. 소리의 경우와 달리 글자로 쓴 운문에서는 읽어서 또 시각적으로도 (흔히 말하는 리듬) 나타난다. 이것을 아래에 옮긴 양지환의 “에어컨이 필요해”에 적용하여 고쳐서 그 리듬을 느껴보자. 그러면 이 시가 더 음악적이게끔 느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읽으면서도 숨을 더 느리게, 빠르게 읽어서 리듬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 또한 그 의미까지도 1, 2, 3연이 점점 강한 의미로 다가옴을 느끼게 된다.

엄마, 에어컨을 틀면 안돼? 너무 더워  
야 적당히 해, 너 전기세 폭탄을 맞고 싶니  
전기세 폭탄이 아니라 잔소리 폭탄이겠지  
이러다 녹겠어. 우리는 에어컨이 장식인가봐



아더워 에어컨이 필요해  
엄마, 에어컨을 틀면 안돼? 너무 더워  
야 적당히 해, 너 전기세 폭탄을 맞고 싶니  
전기세 폭탄이 아니라 잔소리 폭탄이겠지  
이러다 녹겠어. 우리는 에어컨이 장식인가봐  
아더워 에어컨이 필요해  
사는 자꾸 읽으면 노래가 된다는 말이 있다. 시의 원조는 운과 율에 따른 노래가 된다.

산문 금상: "영지의 생활" 김지함(초2-2)

산문 은상: "꼬마 대장님 존에게" 이소명(초3-1)

초등 저학년의 산문 응모작은 2편이다. 김지함은 컵타 놀이를 하면서 꿈을 키운다. 놀이에서는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다. 놀이를 통하여 우리는 배운다. 우리는 이기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놀이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나의 승리만을 생각할 수는 없다. 다만 이 모든 것이 자기 발전의 과정이 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 우리는 "꼬마 대장님 존에게"를 쓴 소명이 책에서처럼 더 많은 책 속의 주인공/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진짜 대장님이 되리라 본다.

### III. 초등고학년 입상 작품

최우수: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온 친구"(산문) 전예슬(초6-3)

예술이는 참 글을 잘 쓴다. 지난해에도 좋은 글을 써냈고 또 이번에는 다른, 운문도 함께 써냈지만, 친구들의 글을 소개하기 위하여 심사에서 제외하였다.

오랜 병상 생활은 고통스럽지만, 다른 한편 스스로를 꿈꾸게 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한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꿈 역시도 마냥 즐거운 것 만이 아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고통을 이겨내는 꿈이 있다. 자신을 부추기며 일으켜 세우는 꿈. 예술이는 꿈을, 자신을 이겨내는 꿈을 그린다. 그 꿈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환우들의 꿈 이야기는 감상에 젖거나 나약한 자기 이야기에 그칠 수 있지만, 예술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허구화하여 자신을 객관화한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 힘든 고통의 과정과 극복의 자기 위안을 풀어낸다. 꿈속의 친구는 생명의 은인이자 백통이나 되는 편지를 쓰게 되는 연인이 된다. 무지개 꿈의 다리 건너에서 기도하는 연인.

이렇게 이야기의 전개는 4개의 부제로 형식의 단단함을 갖추며 무리 없이 끝나고 있다.

운문 금상: "움직이는 마음" 이한비(초5-1)

운문 은상: "비행기" 장성민(초5-3)

운문 동상: "좋은 마음 새씩" 김아영(초5-3)

"움직이는 마음"은 시적 화자가 '너'를 만나서 친구를 삼고 싶었던 마음쓰임을 고백한 시이다. 3연으로 짜여진 각 연의 1행과 4행은 "너와 만났을 때"와 "움직이는 마음"이 각각 반복되면서, 읽는 이의 마음에 일으키는 리듬을 느낄 수 있다. 시각적으로도 일정한 틀을 이루어 모양으로도 리드미컬한 느낌을 일으키게 한다. 동시에 이러한 반복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문 금상: "갈등" 오시우(초5-2)

운문과 달리 산문은 줄글로써, 이야기되는 대상을 풀어서 쓴다. 대상은 서로 다른 이야기의 흐름이 엉키며 힘의 대립이 있으며, 그 대립은

강하거나 여린, 높거나 낮은, 아름답거나 추한 갈등을 일으킨다. 이 갈등의 전개가 즐거리가 되고 이야기의 뼈대가 된다. "갈등"이라는 제목의 이 글은 갈등의 대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즉 심리적인 두 개의 대립하는 힘의 흐름이 전개되고 그 귀결이 소설의 결말이 된다.

주인공 럭키는 문예공모에 AI가 쓴 글을 제출할 것인지, 자신이 쓴 글을 제출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에 빠진다. 즉 갈등을 한다. 전자산업의 발달은 문학 예술 분야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AI를 이용하여 기계가 만들어낸 글을 사람이 쓴 글과 같은 창의적 문학과 같다고 할 것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AI가 쓴 글은 기계적이고 빈틈없을 것이며 인간이 쓴 글보다 뛰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럭키는 전자산업시대에 우리가 겪게 될 예술이라는 것의 본질의 엄청난 의미를 살펴보게 한다. 이 글이 AI, 인공지능에 의한 기계-작품과 인간이 상상력으로 창작한 예술 작품 간의 문제적 예술 가치를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둔 글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이나 타인의 모방작품이 더 뛰어나다는 전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작품으로 삼아서 몰래 제출할 것인가를 묻는 양심의 문제가 그 핵심이다. 이 갈등이 럭키로 하여금 고민하고 꿈에까지 나타나게 하고, 마침내는 모작(模作)이 아닌 자신의 작품을 응모하기로 결정하고 이로써 작가의 길을 걷게 된,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스타 작가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다소 작위적인 즐거리이지만 이 이야기는 럭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른 두 이야기의 방향성, 갈등을 어떻게 감동적으로 엮어내는가에 성패가 달렸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입담있게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을까? AI의 예술품 창작/제작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다.

산문 은상: "제주 워터월드의 신비로운 세상" 장성민(초5-3)

산문 동상: "생애 첫 뮤지컬에 감동받았던 일" 강서진(초6-3)

"제주 워터월드의 신비로운 세상" "생애 첫 뮤지컬에 감동받았던 일"도 같이 묶어서 보기로 하자. 워터월드의 이야기는 8개의 관문을 보고 차례대로 써내려간 글이어서 극적 요소가 없다. 뮤지컬 이야기 역시 안중근에 대한 객관화된 조사를 보고한 글이다. 글쓰기가 꾸며내거나 느낀 감동 감흥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평범한 여행기나 보고서 같다는 생각이다. 제외된 "우리들이 살린 아빠"의 경우 충격적인 사건은 있지만, 아버지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내는 그때의 그 놀라움이나 기쁨을 독자의 마음에 전하는 힘이 약하다. 놀라게 하거나 눈물이 나게 하거나 안타깝게 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그래, 놀라운 사건이라도 당해본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을 소재로 글을 쓰기로 하였다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다. 어쩌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순간에는 몰랐는데 - 심지어는 그것마저도 독자의 호기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떻든 워터월드가 안중근에 대하여 꼼꼼하고 성실하게 기록하고 조사하여 한편의 글을 만들어내는 솜씨는 앞으로도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다고 보고 그 노력을 높이 사서 여기에 올린다.

### IV. 중등부 입상 작품

최우수: "꽃샘추위"(운문) 백지민(중3-5)

운문 금상: "새벽" 문지우(중1-2)

운문 은상: "감사합니다" 김규리(중2-2)

운문 동상: "나의 힘은 자연으로부터" 배지형(중2-2)

중학에서는 응모작이 많지 않았고 입선된 작품도 글쓰기 연습이 더 필요한



작품들이다.

운문이라는 문학의 갈래를 의미 규정한 말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도 운문/시를 '세계의 자아화'라는 어려운 말로 설명한 이가 있다. 이는 시인이 그가 쓰는/노래하는 것은 곧 그가 처해 있으면서 그를 에워싸고 있는 대상/세상을 보고 그 느낀 바를 쓰는 것이지만, 그 세계를 자기의 느낌/마음으로, 즉 자아화하여 쓴 것이다.

꽃샘추위를 보고 시인은 시인이 내세운 가상의 추상적인 어떤 느낌을 말하는/노래하는 인물이 바로 시 속에서 말을 하는 사람/화자(話者 - 시적 화자)이다. 내가 아이로 하여금 들뜬 추위 속에서 무엇을 느끼는 인물로 내세워 말하게/느끼게 한다면, 그 아이는 이 자연(세계)을 어떻게 느낄까? 물론 근원적으로는 시인인 내가 생각하여 상상으로 내세운 '아이'가 느낀다고 생각한 시인의 느낌이다. 아직 채 봄이 다 오지 않아 어떻게 될지도 모를 추위 속에서 한 톨 씨앗은 추위를 이겨내고, 그 추위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희망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추위는 얼음일 수 있으며 고통을 주는 어떤 것일 수 있는 것이다. 그 속에 자아를 가진 아이, 주체는 세계 속의 주체이며 씨앗이며 어린 꽃이며 병약한 아이일 수도 있다. 이때 <자아/주체/아이>를 에워싸고 있는 <추위/얼음/세계>가 그와 대립 관계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시는, 시는 바로 이 세계를 주체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 상태, 그 느낌, 그 정서를 쓴 것이다. 사란 바로 "세계의 자아화"인 것이다. 어렵게 설명되었지?

보라. 얼음과 꽃의 대립, 그리고 그것이 더욱 차갑고 고체로 된 강렬한 생명력과 부드럽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올라, 우리들 마음에 놀라움으로 전해지는 것을. "새벽"은 어떤가. 새벽(어둠)과 해(밝음), 불행과 행복. 이들이 오고, 가고 떠오르고 (어둠이) 사라지고 .... 이런 교차, 뒤엉킴. 이런 발전적으로 뒤엎힌 관계가 마음에 피어올리는 그 상상력 속의 운동들, 운동들이 마음에 떠올리는 움직임/감동. 이것이 바로 시이다. 그러면 이제 모두 자연이 나에게 주는 힘을 느껴보자.

## V. 고등부 입상 작품

최우수: "늘어진 그녀의 손을 붙잡고서" (운문) 문혜빈(고1-4)

우리가 살고 있는 바깥 세계는 여전히 평화롭고 아름답다. 창문 너머로 젖어대고 있는 강아지 소리며, 골목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 계절을 알리며 떨어지는 낙엽, 다정히 잡아주는 아이의 손길.

나는 할머니의 눈웃음과 미소에서 나오는 그 몽글함과 인자함 만으로 할머니를 우리들로부터 멀리 떠나보낼 수가 없다. 나의 사랑은 기대가 되고 미련으로 남아서 할머니를 잡는 내 손길과 그리움으로 할머니를 붙드는 나의 사랑이 할머니를 놓지 않게 되리라. 할머니는 기대와 미련을 만들고 그것은 또한 나에게 기대와 나의 미련이 된다. 비문법적으로 쓰여진 문장이라도 그것을 수십 번을 더 읽으면 그때에 그 시는 독자에게로 와서 비로소 제 의미로 제 자리를 잡는다. 그 자리에는 나와 할머니가 서로 마주하면서 키워내는, 상처 입은 사람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된다.

운문 금상: "흐르는 시간, 자라는 마음" 천가영(고3-3)

운문 은상: "정전" 김서연(고2-1)

운문 동상: "파도와 포말" 이채은(고2-4)

두 편의 모두는 현재까지 고통과 외로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의 불안과 살아가기에 힘든 모습을, 그리고 시의 후반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 기대 다짐을 말하고 있다.

"흐르는 시간, 자라는 마음" 고통과 희망의 분수령은 3연의 첫 단어 "하지만"이다. 전반부인 앞의 1연은 지렁이와 소통하고 모두가 잠들어 있는 밤의 귀갓길이고, 2연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나를 알 수 없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 후반부인 3연은 앞으로의 희망을 말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이다.

"정전"에서는 4연까지가 고통, 슬픔, 외로움 속의 자신의 모습을 어둠에 싸인 정전(停電) 상태로, 5연 이후에는 자신이 홀로 굳건히 일어서고자 하는 밝음의 통전(通電)을 희망하는 다짐을 썼다.

이 두 편의 시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구조나 의미 구사가 비교적 단순하다. 시적 화자의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그 반대급부인 어두운 과거로 대비시켜서 시적 화자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나 정서적 감동의 강렬성이 다소 부족하다.

"파도와 포말"은 시간적으로 파도를 뒤따르면서 생겨난 포말을 두고 그 모양새를 그려낸 것이다. 합리적으로야 파도가 치솟아 떨어지면서 부서져 생기는 것이 포말이지만 상상력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합리성만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채은이가 바라본 것은 그렇게 서로 감싸주어서 어떤 고통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에 대한 비유로서 그 고마운 마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산문 금상: "Dear, My \_" 김연희(고1-4)

산문 은상: "Hello K" 이시연(고3-2)

산문 동상: "모두 고마워" 황주희(고2-3)

"Dear, My \_"와 "Hello K"는 절망에 빠진 한 사람에게 기울이는 사랑과 관심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이야기다. "Dear, My \_"의 용우와 나와의 관계를, "Hello K"에서는 K와 노란 머리 외국인과 관계를 그리고 있다. 전자에서는 용우가 아내를 잃고 남은 딸 다래마저 소아암으로 잃게 되자 그 고통으로 자신을 사회와 차단하고 점점 어두운 혼자만의 공간에 칩거하여 산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삶을 포기하려던 살던 중에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용우에게는 딸을 만난 듯한 새로운 삶의 희망이자 길고도 길었던 용우의 밤에 찾아오는 여명과 같은 만남이 된다. "Dear, My \_"에서도 말을 일절 하지 않고 사는 K가 외국인 틸을 만나게 되고 그는 말문을 닫은 K에게 말을 걸고 친구가 되어준다. 틸은 친절하고 K에게 유쾌하고 다정하게 대하였고 마침내는 K의 말문을 열게 한다. 두 편의 작품은 다 같이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관심을 기울이는 아름다운 관계가 사람을 살려내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모두 고마워"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이다. 다만 이 작품은 만남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읽게 되고 감동되어 소개하는 독후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3편의 작품은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야기를 구구절절 서술하는 것이 새로운 구원의 손길을 더욱 값진 행동으로 상승시키는 규범화된 프레임으로 짜여 있어서 독자들에게 놀라운 감명을 불러일으키기가 쉽지는 않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을 지나치게 과장하게 되어 독자의 공감을 얻기가 어렵게 된다. 결국은 이러한 구도의 글은 글쓰이의 체험과 삶에 대한 천착을 진솔하게 자신만의 느낌으로 잘 그려내지 못하면 멜로드라마적인 흔한 이야기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글 외 부문 수상작품



대상

### 병원소풍 5년 차 12살 빵이의 그림일기(with 꿈사랑학교 노래)

초5-3 방서영

7살에 아픈 곳을 발견하고, 병원에 자주 입원하며 치료를 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병원에 데이트하듯이 소풍 가듯이 즐겁게 다녀오려고 했던 12살의 일기입니다. 그리고 꿈사랑학교에서 줌으로 수업했던 경험을 노래로 개사 해보았습니다. 노래는 정말 쑥스러웠는데, 진짜 용기 내서 불러봤습니다.



초등고학년 최우수상

### 어린 독립운동가들

초5-1 문가현

어린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준비하며 태극기를 그리는 모습을 상상하여 만든 것입니다. 깨진 바닥은 비참했던 그 시대의 현실과 아픈 역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중등부 최우수상

### 소원을 이루어주는 별뿔별

중1-2 이유진

밤 12시에 산 위로 올라가서 별뿔별에게 아프고 힘든 치료와 병을 빨리 낫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고 있는 장면입니다. 별뿔별이 소원을 이루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고등부 최우수상

### 작사랑(자작곡)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후에 시간을 돌리기에 너무 늦은 거 같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 곡을 썼습니다.

고3-2 권대영



## 초등저학년 그리기

금상

### 꿈사랑학교

초2-2 정지우



은상

### 연예인의 이미지는...

초3-2 정우진



동상

### 해피 추석

초2-2 윤하랑





## 초등고학년 그리기

금상

완치되어 퇴원을  
꿈꾸며

초6-4 조찬호



은상

정의의 수호자

초5-1 김지혁



은상

꿈의 꼬마리

초4-1 이상현



동상

어둠 속의 빛

초6-2 김제민



동상

보라보리 빵이토끼

초5-3 방서영



## 중등부 그리기

금상

꽃길

중1-1  
이새봄



은상

마법사 소녀

중2-2  
구유나



동상

나의 최애

중2-2  
이지울



동상

따뜻한 크리스마스

중2-2  
배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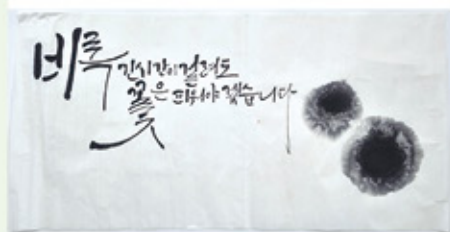


## 고등부 그리기

금상

나의 희망

고2-2 복혜은



은상

데이지

고1-3 박윤하



동상

어서 오세요. 행복을 드리는 빵집입니다

고3-2 송은서





## 초등저학년 만들기·동영상

### 금상 꿈사랑학교로 모여라

초1-1 양무길



### 은상

#### 봄의 양갱송

초1-1 임예봄



### 동상

#### 해바라기 꽃다발

초2-2 윤하람



## 초등고학년 만들기·동영상



### 금상 희망을 주는 무지개떡 이야기

초6-3 전예슬



### 금상 친구들아 친하게 지내자

초5-3 김우빈



### 은상

#### 밤들이

초4-2 전준우



### 은상

#### 아빠의 퇴원 선물

초5-3 윤혜영



### 동상

#### 순수한 사랑

초5-1 김지혁



### 동상

#### 곧 좋은 날이 올 우리를

초6-4 김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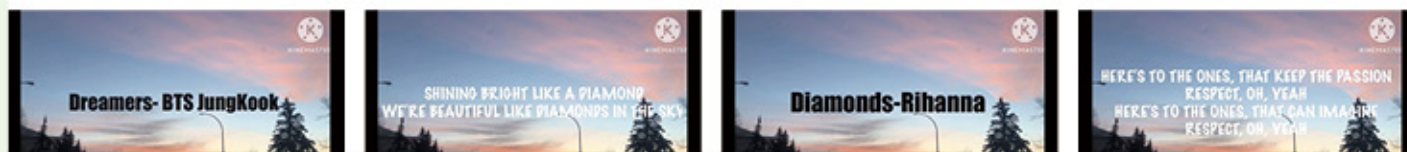


## 중등부 만들기·동영상



금상 투병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나의 노래

중1-2 안지환



은상 파란 앵무 바다

중2-2 이지울

동상

불(자작곡)

중2-2 배지형



## 고등부 만들기·동영상

금상 태양틀고기 기타 커버

고2-4 이채은



은상 집에서 간단하게 휘낭시에 만들기

고3-2 송은서



은상 따뜻한 마음은 내 삶도 따뜻하게 만든다

고1-3 박윤하



동상  
나만의 놀이공원

고2-3 강세연



동상  
나의 희망

고2-2 복혜은







## 제18회 꿈사랑학교 문예창작대회 입상작 글 외 부문 심사평

전 경남도립 미술관장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윤복희

아직은 여름의 끝자락을 붙잡은 듯한 어느 가을날, 제18회 꿈사랑학교 문예창작대회 심사를 하기 위해 꿈사랑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줄어드는 작품 수는 그만큼 아픈 학생들이 완쾌하여 학교로 돌아갔다는 의미 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도 작품 속에 담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하였습니다.

전체 대상을 차지한 방서영 학생의 <병원소풍 5년 차 12살 빵이의 그림일기(with 꿈사랑학교 노래)>는 학생 자신의 투병 생활의 시작부터 소속학교로 돌아간 현재까지를 꽤 긴 시간의 동영상으로 만들어낸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영상의 말미에는 기존의 곡을 개사하여 꿈사랑학교와의 인연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초등 고학년 부문에서 최우수를 차지한 문가현 학생의 <아린 독립운동가들>은 어린아이들이 태극기를 만드는 모습 등에서 학생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며, 인물들 뒤에 놓인 병풍 속 글자의 섬세한 표현 또한 훌륭하게 표현된 만들기 작품입니다.

중등부 최우수를 차지한 이유진 학생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별뿔별>은 별뿔별에 소원을 빈다는 주제에 맞춰 회화적으로 아주 잘 표현된 그리기 작품으로, 성인의 작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완성도가 느껴집니다.

고등부 최우수를 차지한 권대영 학생의 <짝사랑>은 학생의 창작곡으로서, 멜로디와 가사가 매우 훌륭한 작품입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하기 에 매우 성숙하게 느껴지는 가사가 인상적이나 영상에 가사가 함께 어우러졌으면 더 좋았을 작품입니다.

이 외에도 뛰어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초등 저학년 그리기 부문에서, '꿈사랑학교'라는 주제로 크고 정갈하게 잘 그려낸 <꿈사랑학교>, '불미스러운 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연예인'이라는 참신한 주제와 더불어 노련하고 속도감 있게 그려낸 사회풍자가 담겨 있어 더 인상적인 <연예인의 이미지는...>, 초등 고학년 그리기 부문에서, 병원에서 완치되어 퇴원하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단색으로 집념 있게 표현한 <완치되어 퇴원을 꿈꾸며>, 그림 속의 독수리가 자신의 진짜 수호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드러난 <정의의 수호자>, 코끼리의 몸에 있는 다양한 무늬가 창의적인 <꿈의 코끼리>, 꿈사랑학교를 반짝이는 빛으로 잘 표현한 <아름속의 빛>, 좋아하는 동물을 까만 바탕에 귀엽게 표현한 <보리보리 빵이토끼>, 중등 그리기 부문에서, 아름다운 꽃길을 회화적으로 잘 표현한 <꽃길>, 고등 그리기 부문에서, 자신만의 생각과 감각을 뛰어난 구도와 색감으로 표현한 <어서 오세요. 행복을 드리는 빵집입니다>, 초등 저학년 만들기 및 동영상 부문에서, 클레이를 이용하여 단순하게 표현하였으나 여러 색깔이 모여 무지개가 된다는 주제가 잘 드러난 <꿈사랑학교로 모여라>, 초등 고학년 만들기 및 동영상

상 부문에서, 무지개떡을 먹고라도 병이 나아 학교에 가고 싶다는 직접 창작한 이야기에, 훌륭한 목소리 연기가 인상적인 <희망을 주는 무지개떡 이야기>, 중등 만들기 및 동영상 부문에서, 투병 생활의 감정을 톡 털어내듯 부르는 노래가 인상적이며, 영상에 노래의 가사를 넣어 듣는 이로 하여금 노래를 이해시키려는 점이 돋보인 <투병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나의 노래>, 직접 창작한 캐릭터가 귀엽고 훌륭하여 더 다양한 이모티콘이 보고 싶은 <파란 앵무 바다>, 마찬가지로 창작곡이라는 점이 매우 훌륭하여 조금 더 길게 듣고 싶은 마음이 드는 <봄>, 햄버거 가게에서 한입에 물어 먹는 카피바라 모양의 햄버거를 출시해도 좋을 만큼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카피바라 햄버거>, 고등 만들기 및 동영상 부문에서, 따뜻한 기타 연주가 인상적이며 노래도 함께 들어보고 싶은 <태양 물고기 기타 커버>, 휘낭시에의 완성과정을 자세하고 먹음직스럽게 촬영한 부분이 인상적인 <집에서 간단하게 휘낭시에 만들기>, 따뜻한 쿠키로 봉사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베이킹 영상인 <따뜻한 마음은 내 삶도 따뜻하게 만든다>, 놀이동산에 가고 싶은 바람을 담아 만든 재미있는 작품으로, 스티커를 손수 붙여 마치 도시계획을 표현한 듯한 점이 인상적인 <나만의 놀이공원>, 초로 만든 작품으로 예쁜 구도가 돋보이는 <나의 희망>. 언급하지 않은 다른 모든 작품들도 저마다의 의미와 꿈을 담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색감과 구성력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회화작품과 더불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컴퓨터로 작업한 그림이나 동영상 작품이 다수 출품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꿈사랑학교와 꿈사랑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병마를 이겨내고자 하는 간절함이 묻어나는 작품들이 마음에 와닿아, 제 마음도 몽글하고 뜨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꿈사랑학교 학생들의 소중한 바람과 꿈들이, 작품에 드러난 것처럼 찬란하게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화면 밖에서 만나요

우리 꿈사랑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 뿐만 아니라, 화면 밖에서 실제로 친구들과 선생님이 만나는 행사가 있는데요,

바로 '병원 방문' 행사입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는 병원에 가서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는 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병원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드디어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왔어요.

2019년 이후 5년 만인 2024년 7월 19일과 12월 12일에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하여 그리운 얼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에는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에 방문했습니다. 병원 진료가 없었음에도 선생님을 만나러 온 학생들도 있었는데, 혹시 이번에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에 만나요!



### 강호진 선생님

오랜만의 병원 방문에 너무 설레었습니다. 진료 일정이 없음에도 선생님이 보고 싶어 병원에 찾아와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앉아 있었던 다엘이, 서울삼성병원을 다니는데도 친구를 만나려고 서울대병원에 왔던 성현이.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고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감사했습니다.

### 초5-3 김다엘 학생

선생님들이 오실 때 비가 오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기뻐요.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나중에 또 뵙요.



### 김지현 선생님

실시간 수업에서 화면 너머로 만났던 학생을 병원에서 만나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30분 남짓의 짧은 시간에 휴게실 한 귀퉁이의 공간이었지만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아보며 마음을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치료 중에도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고마움과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이 더 커진 하루였습니다.

### 초1-2 김유나 학생

보고싶었던 1학기 국어선생님은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2학기 국어선생님과 그림도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좋았어요.



### ☞ 서창혁 선생님

오랜만의 병원 방문이라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유대감이 쌓이고 애정이 더욱 늘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 고3-2 권대영 학생

당일에 진료가 없었지만,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직접 만난 선생님이 너무 반갑고 책 선물도 챙겨주셔서 행복했습니다. 다음번에 맛있는 것 사주신다는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 ☞ 김지현 선생님

실시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집중치료를 기간이라, 지난 수련회에서 만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 병원 방문을 통해 만날 수 있어 정말 반가웠습니다. 특히 다른 병원임에도 선생님과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직접 와준 학생과 부모님이 있어 더욱 감사했습니다.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안아보기도 하니 학생들이 더 예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 ♥ 초1-1 박비주 학생

외래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선생님과 친구를 잠깐밖에 만날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주사를 다 맞고 혹시 선생님과 재운이가 아직 있을까봐 다시 내려가 봤는데 없어서 속상했어요. 끝말잇기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어서 반갑고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요.



### ☞ 기윤미 선생님

작년 수련회 이후에 여러 번 만남을 가지고 싶어 했지만 만나지 못해 아쉬웠던 대영이를 만나 반가웠습니다. 치료 중에도 밝은 모습으로 반겨주는 모습에 만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과 대영이, 대영이 형 도영이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 초2-1 홍대영 학생

오랜만에 담임선생님을 만나 즐거웠습니다. 선생님과 대화도 많이 하고 시간을 보내서 좋았어요.





## 서울아산병원



### ☀️ 곽영미 선생님

화면으로 가끔씩 만났던 예쁜 고은이가 약치료로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영상통화만 가능하다고 하여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퇴원이 아직 미정이지만 퇴원할 때 추우니까 꼭 선물한 양말을 끼고 선생님 생각하면서 따뜻하게 집에 가라고 전했습니다. 어머님도 너무 좋아셔서 밝은 얼굴로 맞이 해주셨습니다.

### ♥️ 초4-2 김고은 학생

선생님 보고 싶었는데 영상통화로 봐서 좋았고 선물도 귀여워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 신촌세브란스병원



### ☀️ 조우리 선생님

수업시간에 작은 화면으로 만나던 학생들을 실제로 만나니 더욱 반가웠습니다. 컨디션을 회복하여 외래 진료를 오게 된 학생을 보니 함께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담임을 맡고 있는 시우가 치료 일정 때문에 병실과 휴게실에서 영상통화로 만날 수밖에 없어 아쉬웠지만, 평소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며 직접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 초6-4 정시우 학생 할머니

갑작스럽게 병을 앓게 된 시우 때문에 온 가족이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치료 과정이었지만 응원해주시는 꿈사랑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서 시우가 잘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소속학교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신촌세브란스병원



### ☀️ 권솔 선생님

1학기 병원 방문 때도 만났던 혜빈이가 2학기 병원 방문 일정에 진료가 없었음에도 다른 날짜 진료를 앞당겨 일부러 와주어 고맙습니다. 작은 선물에도 행복해하는 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올해 입교하여 2번만의 만남밖에 가지지 못했지만 충분한 라포를 형성한 것 같아 병원 방문의 필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소중한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 ♥️ 고1-4 문혜빈 학생

예상보다 만남이 앞당겨져 진료 순서를 앞으로 바꿨는데 꿈사랑학교 선생님도 뵙고 진료도 빨리 받고 게다가 완치 판정을 받아 아주 기쁜 하루였어요. 완벽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울성모병원



### ☎ 권나우 선생님

온라인상으로 만나던 학생들을 오랜만에 직접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병원 측의 통제로 영상통화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 잠시지만 직접 만난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좀 더 다면적으로 학생들을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의미 있었습니다.

### ♥ 중1-2 지유승 학생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학업에 의욕이 생겨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던 중에 진단을 받게 되어 약간 우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꿈사랑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만나러 와주시고, 영상통화를 통해 격려해 주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열심히 이겨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 서울성모병원



### ☎ 이우빈 선생님

학생들의 수와 상관없이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는 행사가 주기적으로 열리는 것이 꿈사랑학교에 큰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수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사를 많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던 민결이를 실제로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 ♥ 초2-2 김민결 학생

너무 즐거웠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 같아요. 보고 싶었던 이우빈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담임선생님도 꼭 뵙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 양산부산대병원



### ☎ 박경진 선생님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네 명의 학생 중 입원한 한 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진료가 없었지만, 선생님들을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울산에서, 경주에서 양산으로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만큼 오프라인에서 선생님들, 친구들과의 만남의 기회가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방문이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행사가 주기적으로 진행이 되어 수업 시간에서는 하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 초4-1 오상민 학생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병원방문을 통해 선생님들 직접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같은 반 친구들도 만나면 좋겠습니다. 양산 부산대 병원에 다니는 또래 친구들을 알지 못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병원방문에서 비슷한 성향의 동생을 만나서 재밌었습니다. 다음 입원 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칠곡경북대병원



### 류귀남 선생님

중학교 3학년 사춘기 남학생이지만,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학생이라 걱정을 많이 했지만, 혼자 병실에 오래 입원하고 있는 친구라 이야기도 오래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학생의 고맙다는 메시지를 받아보니 짧은 만남이지만, 병원 방문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중3-3 정선경 학생

담임 선생님만 오시는 줄 알았는데 여러 선생님이 오셔서 처음엔 놀랐지만, 재미있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계명대동산병원



### 장지영 선생님

선생님들이 먼 곳에서 온다고 치료 일정이 없는데도 병원에 와 준 학생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집중치료 중이라 입원해 있는 학생을 만났을 때 꿈사랑학교 병원방문의 의의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치료 일정과 컨디션 문제로 실시간 수업 참여 혹은 꿈사랑학교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선생님들이 학생을 알고 있고, 학생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초6-1배준성 학생

외출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병원방문을 기회로 오랜만에 외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대구까지 온다고 하여 재할 일정도 빼고 왔습니다.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행사에 컨디션이 좋아지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센터



### 강호진 선생님

화면에서만 보던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환하게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다른 병원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 무척 아쉬웠지만 전해온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꿈사랑학교에 대한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 초5-3김다영 학생

만나기 전부터 무척 설레어요. 꿈사랑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 키트도 만들고 사진도 함께 찍어서 즐거웠어요. 선생님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 2024학년도 꿈사랑학교 성과공유회에 초대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2024학년도 꿈사랑학교 성과공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아리활동, 진로명사특강, 진로상담수업, 자치적응활동,  
학업성취도평가, 롤링페이퍼, 학교생활기록부,  
병원방문, 문예창작대회, 체험학습, 하계수련회 등  
한 해 동안 우리 학생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소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는데요.  
우리가 함께라서 더 빛나는 그 모습들, 함께 만나볼까요?!

## 동아리활동

**3. 활동 결과**

꿈은 시작을 만들고  
시작은 노력을 불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꿈은 시작, 롤링그라운드

2024학년도 성과공유회  
롤링페이퍼  
김태우 교사  
공적담당

## 학업성취도평가

**2. 조직과 운영**

■ 전담 2팀, 특기별 1팀  
50시간(가 시간 40분)  
■ 2024학년도  
-교과 3학년  
(대상) 50명  
■ 2024학년도  
중 고등학생 대상  
시행할 평가 도식

2024학년도 성과공유회  
학업성취도평가  
김태우 교사  
공적담당

## 롤링페이퍼1

꿈사랑학교 롤링페이퍼 대표작품

2024학년도 성과공유회  
롤링페이퍼  
김태우 교사  
공적담당

## 롤링페이퍼2

꿈사랑학교 롤링페이퍼 학생 학부모 반응

2024학년도 성과공유회  
롤링페이퍼  
김태우 교사  
공적담당

## 학교생활기록부1

2024학년도  
꿈사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2024학년도 성과공유회  
학교생활기록부  
류귀남 교사  
공적담당

## 학교생활기록부2

꿈사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소중한 가치를 책임있게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성과공유회  
학교생활기록부  
류귀남 교사  
공적담당

## 병원방문

병원방문  
◆병원방문

2024학년도 성과공유회  
병원방문  
이우현 교사  
공적담당

## 문예창작대회

문예창작대회

2024학년도 성과공유회  
문예창작대회  
이우현 교사  
공적담당

## 온라인 체험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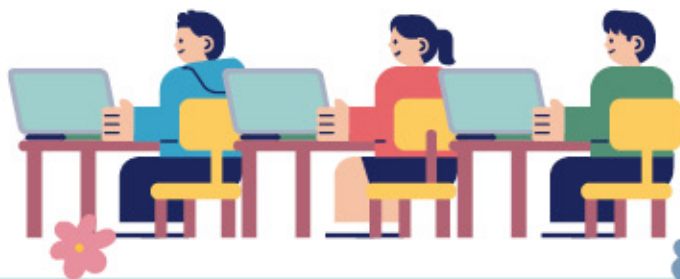
온라인 체험학습

2024학년도 성과공유회  
온라인 체험학습  
정현호 교사  
공적담당

## 하계수련회

하계수련회

2024학년도 성과공유회  
하계수련회  
정현호 교사  
공적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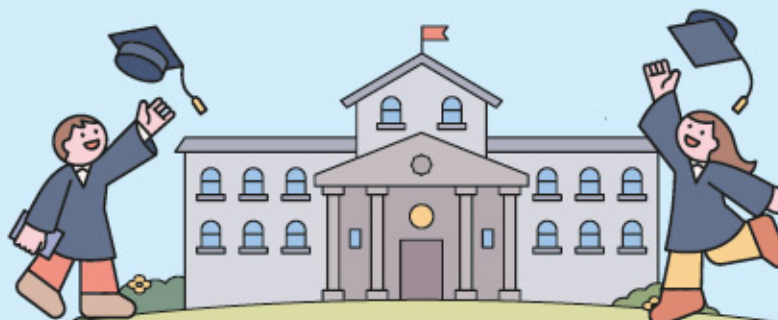




2024학년도 온라인 수료식

## 너의 빛나는 성장을 응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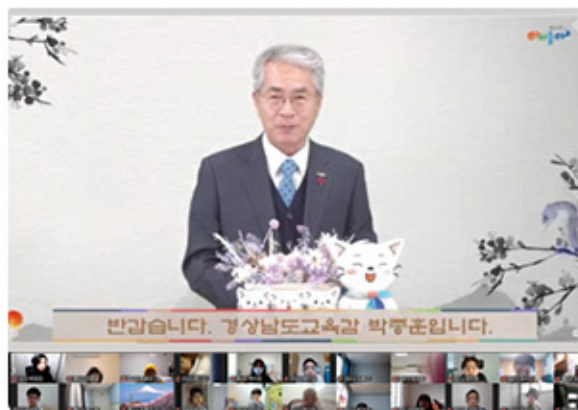
2025년 1월 17일, 2024학년도 꿈사랑학교 온라인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수료증 수여, 문예창작대회 시상과 더불어 축하 메시지 및 감사편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꿈사랑학교 교직원들에게도 선물과 같았습니다. 한 해 동안 학업과 치료를 병행하며 꿈을 향해 나아간 꿈사랑학교 학생들의 수료를 축하합니다.



##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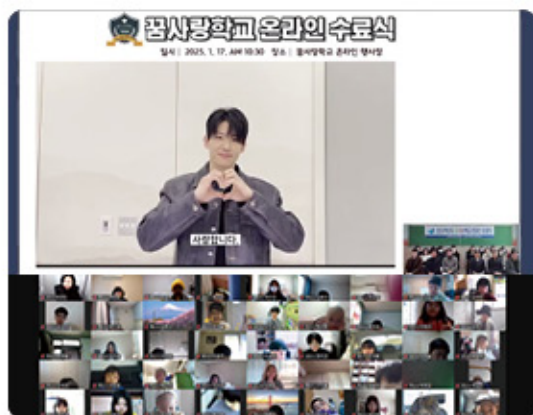
사랑하는 꿈사랑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꿈과 희망, 사랑으로 가득한 이 자리, 꿈사랑학교에 2024학년도 수료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힘든 치료와 학업을 함께 하면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배움과 성장의 길을 걸어온 여러분이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롭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여러분의 빛나는 꿈이 이루어지길 언제나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 박종훈



## 덱스 축하 메시지

안녕하세요 친구들. 덱스에요. 우리 꿈사랑학교 친구들이 2024년에 힘든 수술과 치료를 용기로서 잘 극복해냈다고 들었어요. 2025년에는 우리 꿈사랑학교 친구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밝게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건강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을 보러 꼭 한번 꿈사랑학교에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차고 밝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길 바랄게요. 사랑합니다.





## 졸업생 감사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3반, 전예슬입니다. 벌써 12월도 끝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노래 가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공꾸지 않으면...♪

공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헤는 맘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맘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꾸며 사랑하는 우리/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희망을 노래하는 것.

이것은 건대학교에서 발제한 노래 가사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꼭 공사랑학교 같습니다. 6년 동안 힘든 투병 생활 중에서도 공사랑학교 덕분에 저는 꿈꾸고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식을 하고, 1학년 때부터 공사랑학교를 다녔습니다. 공사랑학교에 처음

왔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납니다. 제가 좀 어색해했을 때,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좋았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선생님들 덕분에 많이 웃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울고 웃으며 함께 했던 친구들에게도 졸업을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고, 더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랑학교가 생길 수 있게 도와주신 안병익 교장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생각해 주시고,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랑학교는 저에게 정말 '보약'입니다. 이 학교가 없는 세상은 슈크림 없는 봉어빵에, 앙고 없는 전갱이예요. 투병 생활하면서도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기서 6년 동안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중학생이 되어서도 더 모범이 되고, 건강한 예술가가 될게요.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저는 아만 마치겠습니다. 공사랑학교 선생님, 친구들 모두 사랑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3반 전예슬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저는 중학교 3학년 1반 구준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언제나 저희에게 사랑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 깊은 행동 덕분에 저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가르침과 신뢰를 마음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구들 덕분에 매일매일이 특별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웃음, 치열하게 반복했던 고민, 그리고 보통의 일상들이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용원이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고, 서로 돕는 따뜻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공사랑학교의 교장선생님,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담임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들 덕분에 제가 이곳 공사랑학교의 일원으로 머무를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받은 사랑과 용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그에 보답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당연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친구들아 3년 동안 행복했다, 모두들 고생했다.

중학교 3학년 1반 구준표

안녕하세요, 저는 공사랑학교의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정지안입니다. 공사랑학교에서의 시간은 제게 단순히 학업을 넘어, 삶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공사랑학교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받으며, 제 삶의 방향을 더욱 단단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후배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와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자부심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리고 이곳에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돕기 위해 함께 하는 선생님들,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공사랑학교가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우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치료와 학업 모두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늘 배려해 주시고, 저희를 끝까지 믿어 주신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저는 지금의 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반 정지안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고, 그 빛은 앞으로 더 크게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꿈을 향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 우리들의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은 장면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꺼내 든 적이 있나요?  
 그게 무엇이든 각자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추억들이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직접 찍은 사진 & 추억하고 싶은 사진들을 모아 우리들의 이야기에 담아 보았습니다.  
 2024년 2학기, 우리 아이들에게 또 어떤 소중한 일상들이 가슴속 별☆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꿈사랑학교 우리들의 이야기! 바로 공개합니다



### 고1-3 전이주

아프면서 우연히 취미로 화각을 배웠는데  
 개인전까지 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화각으로 표현했는데 의미 있는 전시회에  
 꿈사랑학교 쌤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초1-1 박사안

포켓몬 가오레 게임에서  
 '자포코알'을 잡은 날!



### 초1-1 양무길

엄마와 함께 박물관 투어를  
 열심히 했어요.  
 힘들었지만 기억에 남아요^^



### 중1-1 박세봄

체크 옷 입은 아이가 봄이입니다.  
 과학 영재 캠프 참석 중입니다. ^^



### 초4-2 이정재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즘  
 다이어트 중이기도 합니다.^^

### 초5-3 김다엘

청와대 사랑채를 갔다가 등불을 봤는데  
 너무 예뻐서 찍었다!







#### 초4-2 전준우

이번에 검도 대회에 나가서 쏫볼 끄기와  
검도 검법 외워서 하기 등 여러 부문에 참여했어요.  
새벽에 거창에서 김해까지 다녀왔습니다.



#### 초5-3 김아영

학교 가는 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하늘이 파랑파랑하고 구름 모양이  
한곳으로 몰려 있어서 찍었습니다.



#### 초5-3 류형주

ktx를 타고 병원 외래를  
다녀오는 길입니다~



#### 초5-3 박도진

병원 외래 다녀왔습니다.  
든든히 아침을  
챙겨 먹는 중이에요!



#### 초5-3 윤혜영

미술 학원에서  
풍차를 그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찍어주셨어요!



#### 초5-3 장성민

엄마랑 주문진에 가서 찍었어요.  
도깨비 촬영지로 유명한 곳인데  
순두부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 소품을 빌려줘요.  
아이스크림도 도깨비 모양인데  
맛있었어요.



#### 초5-3 진민성

친구들과 서울 서대문형무소도  
다녀오고 이번에  
수학 학력평가에서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초5-3 한성현

카페에서  
인생샷 찍었다~!





### 초6-1 박인석

입원 치료 중에도 팩도 하고  
디폼 블럭도 만들고 즐겁게 지내요!



### 초6-3 강서진

키오스크 주문도 해보고 심심할 때면  
이곳저곳 외출하는 일상입니다. ^^



### 초6-3 이다현

왕고구마를 보고  
행복한 다현~!



### 초6-3 이성호

진주, 가야초, 함안군 유소년승마단이 함께한  
대회에서 초등부 장애물 1위를 했습니다.

### 초6-3 전예슬

병원 안에 예쁘게 꾸며진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사진도 찍고  
친구도 만났어요~^^



### 초6-4 문석민

소속학교에서 6학년 전체  
영화관람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모나2를 보고 왔어요.  
졸업하기 전에 친구들과  
영화를 볼 수 있어  
좋은 추억이 되었어요.





롤링페이퍼

## 내 마음이 너에게 닿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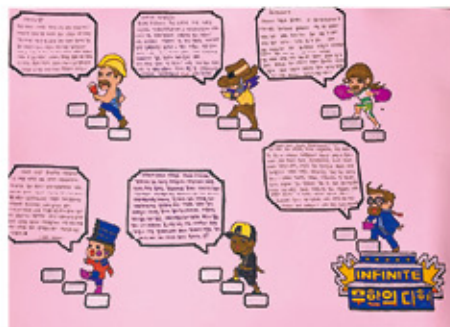


꿈사랑학교에서는 각 선생님께서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며 지쳤을 담당 학반 학생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롤링페이퍼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직접 디자인을 구상하여 만드는 롤링페이퍼!

이러한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닿아 아이들이 치료도 잘 받고 새로운 출발도 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더 나은 환경을 위한 개선의 목소리



지난 6월 4일, KBS 경남 뉴스에서 꿈사랑학교 관련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소아암 등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등교하지 못하는 건강장애 학생이 받는 현재의 위탁 교육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현실과,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뉴스였습니다. 학생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 건강장애 전문 특수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 사진 출처 KBS 뉴스 경남 2024. 06. 04





# 꿈사랑학교의 소통창구

꿈사랑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과 행사들이 궁금하시да구요?  
꿈사랑학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속속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답  
니다. 바로 꿈사랑학교 SNS(누리소통망)를 확인하면 된다는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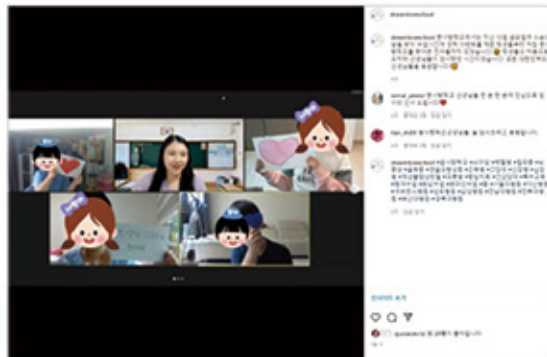
## 접속 방법 ①

학교 홈페이지 왼쪽 위에 있는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아이콘 클릭하기!

## 접속 방법 ②

인스타그램, 네이버에서  
'꿈사랑학교' 또는 'dreamloveschool' 검색하기!

꿈사랑학교



다른 반 수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꿈사랑 수업시간  
중 있었던 다양한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이번 달에 우리 학교에는 어떤 행사들이? 학교 행사와 학  
사 일정에 대한 소식도 확인 가능하대구요~내가 참여하지  
못한 행사들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어요!



그 외에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학교 내의 소식과 꿀팁들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가끔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들도 SNS에서 진행된다는  
사실! 놓치지 마세요 ^^

## 후원 소식

올해도 다양한 곳에서 소중한 마음을 전달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후원을 해주셨고, 지면상 모든 분들을 실어드릴 수는 없지만,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꿈사랑학교에 후원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다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금액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소중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갯피플



'갯피플'에서 금 일백만 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 꿈사랑학교장 안병익



꿈사랑학교 안병익 교장선생님께서 금 오백만 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 극동체육관



극동체육관에서 금 백구십만 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 서창원라이온스클럽



서창원라이온스클럽에서 이백오십만 원 상당의 학습교재를 지원해주셨습니다.



※ 지면에 심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이재현 학생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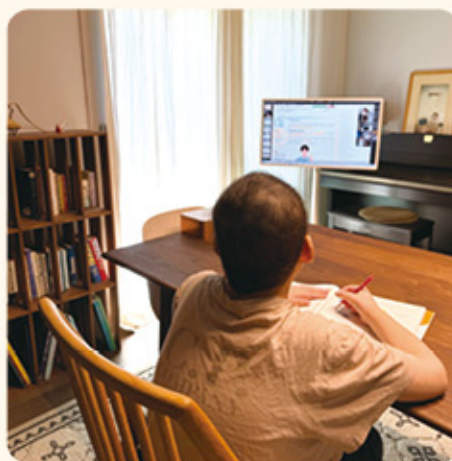
이재현 학생의 가족분들께서 금 삼백만 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 꿈사랑학교 명예교사 강원석 시인



꿈사랑학교 명예교사 강원석 시인님께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기부금 금 일백만 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 LG전자



LG전자에서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위해 이동형 모니터 '스탠바이미'를 15대 기증해주셨습니다.

## (사)더불어하나회, 4년 연속 스타공익법인 선정!

안녕하세요! 꿈사랑학교입니다. 지난 6월 10일에 한국 가이드스타 주최로 '2024 한국NPO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여러 공익법인들이 모여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투명한 공익기관에 시상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공익법인 1,126개 법인 중 스타공익법인 만점 별점 3개를 받은 기관은 44개이며,

꿈사랑학교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는 스타공익법인에 4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 지방 거점 법인으로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하나회와 꿈사랑학교는 앞으로도 더욱 건강장애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후원 안내

## 후원자를 찾습니다

### 후원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치료비 지원

치료비가 부족한 학생을 위한  
모금 활동 및 치료비 지원  
지역사회와의 지원 연계



#### 정서 함양

병원 방문, 수련회, 체험학습  
각종 교육 프로그램 진행  
학습 간담회 활동 지원,  
연구서 및 인식개선자료 발간



#### 교육 지원

실시간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학습 기자재 지원, 장학금 지원,  
학습 프로그램 지원, 건강장애학생  
학습 환경 개선, 학습활동지원,  
전자 도서관 운영,  
문예창작대회 개최



학습간담회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병원 방문



문예창작대회



화상강의 수업



수료식

앞으로도 꿈사랑학교는 소아암, 백혈병,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건강장애학생에게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학생들 자신의 미래를 위한 꿈과 희망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금은 오직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주세요.

#### 사랑의 저금통 번호

경남은행 | 538-07-0058549 (예금주: 더불어하나회)

농협 | 824-01-015946 (예금주: 더불어하나회)

신한은행 | 100-022-642375 (예금주: 더불어하나회)

#### 후원 방법

정기 후원 |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후원 | 비정기적으로 원하시는 때에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후원금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일 년 동안 내신 후원금에 대하여 연말 정산용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중1-1에 재학 중인 이새봄 학생의 일러스트와 꿈사랑학교 명예교사 강원석 시인의 꿈사랑학교 헌정시로 제작되었습니다.